

정책토론회 자료집

# 서울시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과 과제

2004. 12. 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연 구 진

---

연구책임 : 조권중 연구위원

연 구 원 : 최현재 위촉연구원

---

## 행 사 일 정

13:30- 14:00 등 록

14:00- 14:10 개회식

인사말 : 백용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14:10- 14:40 주제 발표

주 제 : 서울시 공공도서관 실태와 발전방향

발 표 : 조권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4:40- 14:50 휴식 및 장내 정리

14:50- 16:00 지명 토론

사 회 : 조찬식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토 론 :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곽종빈 서울시 문화과 문화환경조성팀장

김지봉 경기도립 과천도서관 정보봉사과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이현주 한국도서관협회 총무부장

조정화 성북정보도서관 관장

차미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6:00- 16:30 방청객 토론



# 목 차

|   |    |
|---|----|
| 제 I 장 연구개요 .....                                    | 1  |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 1  |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 3  |
| 제 II 장 공공도서관의 제도와 정책방향 .....                        | 6  |
| 제1절 공공도서관의 제도 .....                                 | 6  |
| 제2절 공공도서관 관련 정책 .....                               | 15 |
| 제 III 장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과 시민 이용 .....                   | 21 |
| 제1절 공공도서관 시설과 규모 .....                              | 21 |
| 제2절 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행태 .....                            | 33 |
| 제3절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프로그램 .....                           | 40 |
| 제 IV 장 공공도서관 사례 .....                               | 55 |
| 제1절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례 .....                              | 55 |
| 제2절 해외 공공도서관 사례 .....                               | 60 |
| 제 V 장 서울시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 .....                         | 67 |
| 제1절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환경 개선 .....                          | 68 |
| 제2절 지역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강화 .....                       | 70 |
| 제3절 서울시 공공도서관 체계(Seoul Public Library System) ..... | 75 |



# 제 I 장 연구개요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 서울의 문화도시 선언

서울시는 2002년 문화도시 서울을 선언하였다. 문화도시에 대한 사회적 반향에서 지역사회 공공문화공간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2003년의 ‘문화도시 서울을 향한 정책 구상’에서 문화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도서관 100개 확충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의 진행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과 문화관광부의 장기 도서관 정책,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 등 도서관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나오는 정책 환경이 형성되었다. 서울시 차원에서 도서관 현황과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 방향의 정립이 중요한 시기이다.

#### ○ 서울 공공도서관의 이원적 운영체제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 이원적인 운영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서울의 1구 1도서관 건립사업 완료 후 시립공공도서관(교육청 관할)과 구립공공도서관(구청 관할)의 이원적인 운영 체제 정착되었다. 또한 기존 공공도서관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일부 시립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되었고, 도서관의 위탁 운영에 따른 도서관 운영 주체의 다양화 등 서비스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 ○ 지역사회와 공공도서관

그 동안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 따라 여러 차원에서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은 저조하고, 기존의 도서관의 설비는 낙후되어 있으며, 도서

자원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2. 연구목적

### ○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 제시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에 서울시민의 정보활동과 지역 사회의 시민참여 문화활동의 중심공간으로서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공공도서관 문제점 제기와 서울시 개선안 제시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도서관 실태에서 문제점을 찾고, 도서관의 점진적인 개선을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서울시가 공공도서관 정책에 있어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시민의 지적 욕구 충족과 지식 정보환경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한다.

### ○ 시민중심성을 전제로 한 개선안 제시

공공도서관의 개선 방안은 시민중심성을 전제한다. 시민의 관점에서 공공도서관은 시민이 향수하고 누릴 수 있는 시민의 자산이며,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책 방향은 이용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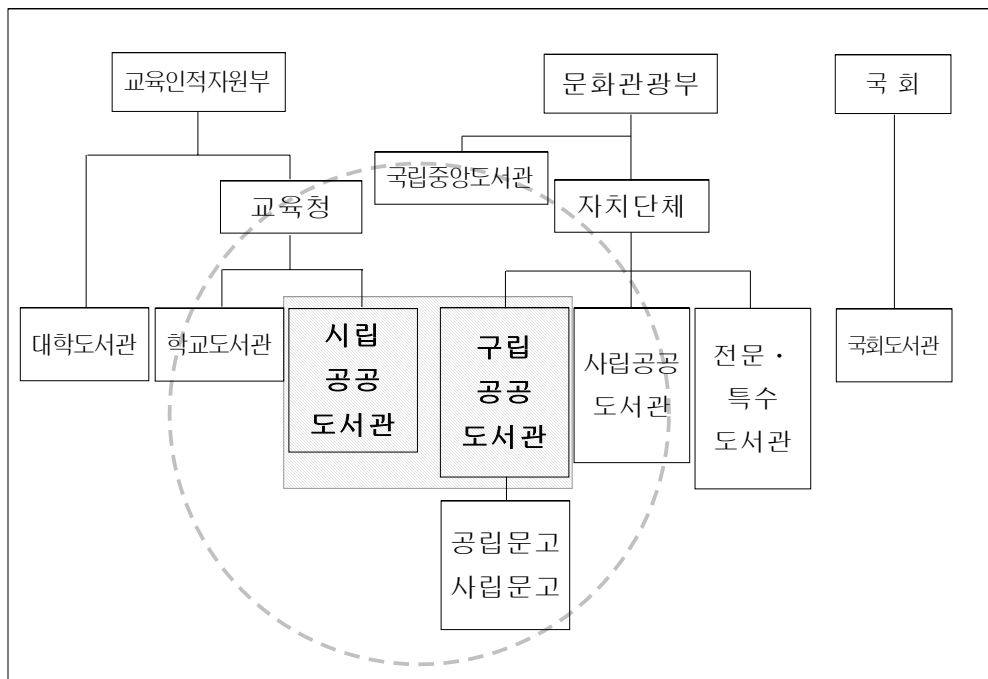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 연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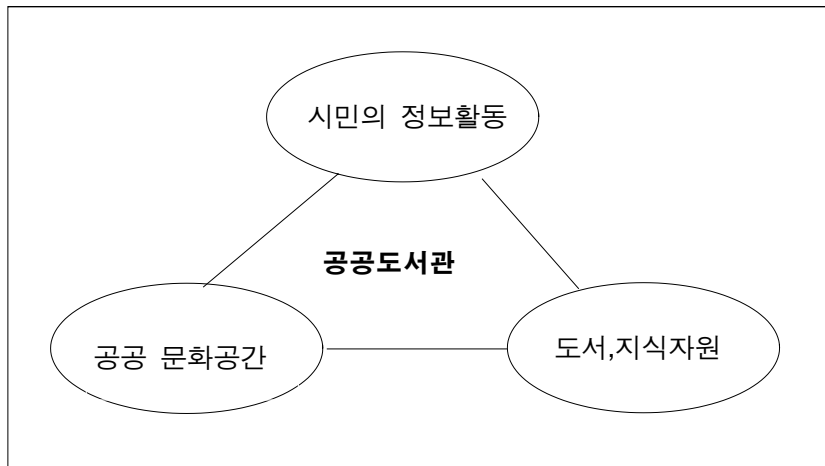
연구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공립공공도서관인 시립공공도서관과 구립공공도서관으로 설정한다.



<그림 1-1> 연구 대상과 범위

#### ○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앞선 밝힌 시민중심성을 전제하고 시민의 정보, 문화, 학습 활동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을 공간, 활동, 자원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을 규정하는 특성에는 지역의 공공 공간의 특성과 공공 공간을 채우는 자원의 특성, 그리고 이 공간과 자원을 활용하는 시민이 전제되고 있다.



<그림 1-2> 공공도서관 분석틀

## 2. 연구방법

### ○ 문헌고찰

문헌고찰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을 위한 논의 검토를 위한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도서관 관련 학술 논문과 저서들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이슈와 문제를 점검하였다.

### ○ 운영 및 실태조사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설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각 도서관별 물리적 환경과 운영 및 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인터뷰 후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2004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였다.

### ○ 공공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설문조사는 이용자들의 행태와 도서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도서관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에서

대생활권에 있는 시립공공도서관 3개, 구립공공도서관 2개를 조사대상 도서관으로 선정하여 이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 사례조사

서울시 공공도서관 가운데 시립공공도서관과 구립공공도서관을 각각 한 군데씩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2002년에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의 결과,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문화기반시설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시립과 구립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였다. 해당 시설을 참여 관찰하고, 이용자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용자들이 해당 도서관이 갖는 의미를 밝혀보고자 했다.

해외 도서관 사례로는 뉴욕시(City of New York)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체제와 운영 및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여건의 한계 상 런던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체제는 런던도서관 홈페이지([www.londonlibraries.org](http://www.londonlibraries.org))와 관련 문헌을 통해 해외 공공도서관의 사례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기타 해외 공공도서관 사례로서 샌프란시스코 중앙도서관과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을 살펴보았다.

## ○ 자문회의

서울시 공공도서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도서관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았다. 연구 진행과정에 도서관 관련 학계, 협회 및 도서관 담당자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연구의 범위와 정책 방향 및 공공도서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제 II 장 공공도서관의 제도와 정책방향

### 제 1 절 공공도서관의 제도

#### 1.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법과 제도

#####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현재의 도서관 체제는 도서관법의 개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963년 [도서관 법] 제정이후 여러 번 개정되었으나 1991년 [도서관 진흥법],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도서관을 관종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을 전체 도서관의 총괄로 지정하고,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분류하였다. 도서관 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문고로 하여 도서관 체계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 ○ 도서관 정책의 관할

도서관 정책의 관할 기관은 1990년 문화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 문화부가 창설되어 도서관의 정책이 교육부에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책 이관 이후에 문화부는 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정책만을 관할하고,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또한 공공도서관도 기존의 교육청이 관할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오게 되었다.

##### ○ 공공도서관의 규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2조 제4항에서 ‘공공도서관’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미 공공도서관의 법적인 정의에서 공공도서관의 비전과 역할이 수용되고 있다.

법적 규정에는 공공도서관의 일차적인 업무는 도서자원의 보존과 축적이며 이를 시민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공공도서관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지방행정 및 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주요한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독서의 생활화 추진과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장려를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 이러한 법적 규정에서는 실제 운영에 있어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도서관의 일차적인 역할에 대한 강조에서 도서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을 볼 수 있다. 즉 도서관을 도서를 축적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한정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넓은 의미의 문화활동을 구현하는 공간으로써 문화적 활동이 강조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측면에서는 교육과 학습의 공간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활용의 문제는 도서관의 정체성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록 도서관이 도서 자원을 중심으로 성립되었지만 공공 공간으로써 도서관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 도서관 협력 연계망 운영

도서관법에는 운영에 있어서 다른 도서관과 연계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sup>1)</sup> 도서관 연계망은 도서관의 가장 주요한 자원인 도서자원에 공동 활용을 통해 보다

---

#####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1조 (도서관협력망의 구성)

①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도서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도서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체제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 전산화된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서지편찬·정보처리·봉사활동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분담수서·상호대차·종합목록 및 인쇄카드제도등 도서관운영의 효율화
4. 기타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 협력망은 각종 도서관으로 구성하고 협력망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을 위하여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중앙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된다.

효율적이며 풍부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원의 활용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관리의 상호 협력,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이것은 도서관 전체 체제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규정이나, 대부분의 다른 규정들은 공공도서관에 대해 단위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전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연계망은 법적 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권장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 2. UNESCO와 IFLA 공동선언에서 공공도서관

- 국제적인 수준에서 과학과 문화에 대해 공조활동을 하는 UNESCO는 1994년 국제도서관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과 함께 공공도서관에 대한 선언을 하였다. 이 선언에는 공공도서관의 정체성과 의미를 구체화하고 공공도서관의 임무와 기금과 법,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지식의 통로(A Gateway to Knowledge)로서 공공도서관

- 시민의 민주적 권리와 사회 참여 - 사회적 가치: 자유, 번영, 발전
-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지식 통로로써, 평생 학습과 자율과 문화발전의 기반이 됨.
- 교육과 지식, 정보, 문화에 대한 접근
-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 공공도서관 지원 권유
- 공공성으로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 UNESCO 선언에서 공공도서관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근대 시민사회 형성 이래 공공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던 시민의 계몽과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본질적 의미에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변함이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지식, 정보, 문화에 대한 접근을 통해 지역의 사는 시민들이 평생 학습과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게 지식의 통로로서 역할이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능은 공공

성으로 인식되어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원의 책임이 있으며, 시민에 대한 지식의 통로에 대한 접근에 있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보장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의 임무

- 어린 시기에 독서 습관 강화
- 자율 학습 지원
- 개인의 창조적 발전의 기회 제공
- 아동과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력 배양
- 문화적 전통과 예술의 향유, 과학적 성취와 혁신에 대한 홍보 안내
- 공연 예술에 대한 접근성 제공
- 상호간 문화이해와 문화적 다양성 고취
- 구연 전통의 지원
- 시민에 의한 지역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 컴퓨터 기능과 정보 해득 능력 발전 촉진
- 해득활동 참여 지원과 주도

- UNESCO의 공공도서관선언(Public Library Manifesto)에서는 문헌과 도서에 대한 강조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공공 문화공간의 하나로써 도서관이 하여야 하는 임무로 지식에 대한 접근 통로로써 시민에 대한 지원과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문화의 맥락에서 도서관의 공간적인 특성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은 공공의 문화활동 공간이다.

### 3.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 문화관광부는 2002년 8월에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을 중심으로 [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발전 방안과 종합계획은 연장선에 있기에 같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방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정보화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대응

및 수용이다. 현재 법으로 제시된 제도적 기반에서는 정보화에 대한 수용과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업무가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면이 새로운 도서관 장기 발전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도서관 발전 계획의 추진 배경으로는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와 이로 인한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기능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이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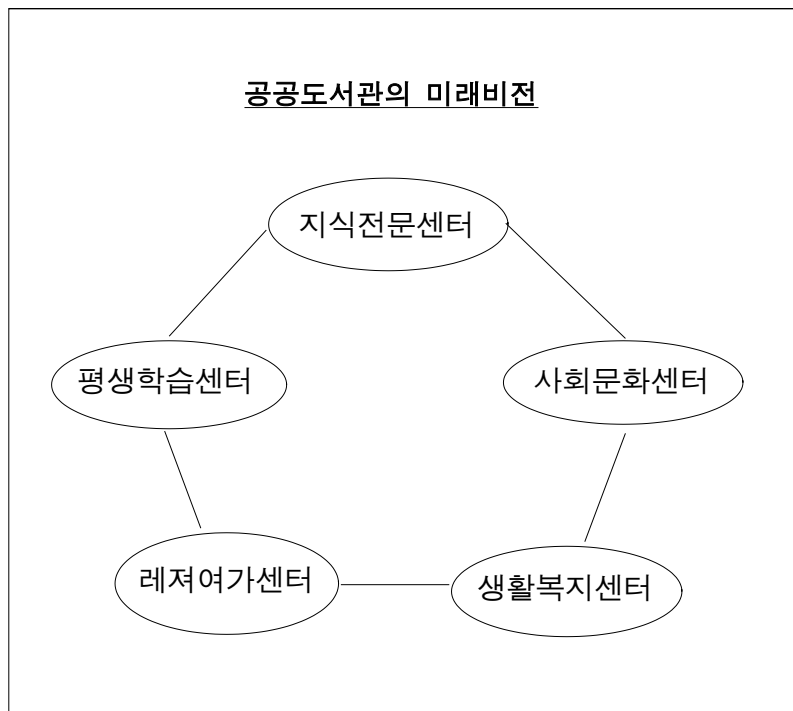
- 지식정보사회 국가 지식인프라의 핵심기관인 도서관의 중요성 증대
- 문화복지, 평생교육시대 국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체험, 학습공간으로서 도서관의 기능 확대
- 전국민의 지식정보 활용능력 향상과 균등한 정보접근 기회제공으로 정보격차 해소

사회의 변화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로 문화복지, 평생 교육, 학습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를 추구하게 되었다.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이 정보격차 해소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시하고 있다.

- 도서관 발전 목표와 과제에서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기능 설정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서는 도서관 전체 체계에서 공공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도서자원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기능에서 지식전문센터로의 강화를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보다 외연을 확장하여 평생학습센터에 사회문화 및 레저여가와 함께 생활복지 센터로서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할 것은 지역 사회의 접근성과 지역 사회의 뿌리 내림이다.





<그림 2-1> 공공도서관의 비전

#### 4. 한국도서관 협회의 공공도서관 기준

- 2003년 12월 한국도서관 협회에서 발간한 ‘한국도서관 기준’은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관련 법률의 개정제 지침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즉, 도서관 운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서관 종류에 따라 사명과 목적, 조직 및 인적자원, 자료, 시설, 예산, 이용자 봉사, 평가에 대한 원칙과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도서관 기준’에서 제시한 공공도서관의 사명과 목적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정체성과 발전방향을 보고자 한다. 우선 공공도서관의 사명으로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증진을 통한 기본권의 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지식 접근권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설정·보장
- 도서관협력망의 구축과 활성화,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요구에 대처, 건전한 시민의식 확산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식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정보센터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화생산기관이며, 공공교육 지원, 평생교육 기능 수행해야 함을 말한다.

또한 공공도서관 기준은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독서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실시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를 하기위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한 사항들은 공공도서관의 지역대표도서관 기능강화, 사서직 중심의 운영, 도서관협력시스템 강화, 자료중심의 운영, 지역사회 정보센터의 지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 5. 정체성과 발전방향

### (1) 정체성규정에 대한 비교

-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의 여러 시각을 비교하여 공공도서관 발전방향을 찾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규정은 현재의 운영 현황보다는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시를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공공도서관이면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소명을 포함하고 있다.
- 전반적으로 볼 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의 규정은 가장 전통적인 규정의 성격을 띠고 도서관과 도서관자원을 일치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UNESCO선언은 어느 나라에서나 구현하고자 하는 공공도서관의 보편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광부의 도서관 발전의 계획과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만 정보화의 수용이 두드러진다. 한국도서관 협회의 기준은 UNESCO선언과 관련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국의 제도적인 현실에서 도서관원 중심이 강조되고 있다.

<표 2-1> 공공도서관 정체성 비교

| 구 분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UNESCO 선언                              | 도서관발전계획과 발전방안연구 (문화관광부)      | 공공도서관기준 (한국도서관협회)                      |
|--------|-------------------|--|------------------------------|--|
| 시민/이용자 | 공중, 지방행정, 산업 정보제공 | 시민의 민주적 권리와 사회참여를 위한 계몽 역할, 아동과 청소년 강조 | 정보서비스, 수용자 이용자 중심            | 건전한 시민의식 확산,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형성, 서비스 봉사 중심 |
| 자원     | 도서자원, 정보          | 교육, 문화, 과학,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성             | 멀티미디어, 접근중심의 장서              | 도서자원 중심                                |
| 공간     | 문화활동, 평생교육        | 지식의 통로, 공공성                            | 지식전문, 평생학습, 사회문화, 레저여가, 생활복지 |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 공중 공간                |
| 프로그램   | 독서생활화             | 어린이 독서 습관, 자율학습지원                      | 지역사회 뿌리내림.                   | 독서생활화,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요구에 대응              |
| 정보화 대응 | 기타 업무             | 컴퓨터 기능 및 정보해득 능력 개발                    | 도서관정보화, 웹환경                  | 정보격차해소                                 |

## (2)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

-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여러 시각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각계의 연구 노력과 실천적 노력의 산물로써 이러한 방향은 일반인의 입장에서조차 적극적으로 수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서관의 모습에서 기대하는 바이다. 이러한 발전방향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공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보다 이르게 설정된 것도 있고, 한국적 현실에서의 공공도서관 운영의 특성을 반영한 것을 볼 수도 있다.

- 각각의 기준에서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수렴할 수 있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향으로 **시민중심, 공공 공간의 활용, 도서를 포함한 정보와 지식 자원의 접근**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공간과 프로그램에서 독서활동을 포함한 **문화활동과 평생교육/학습**은 공공도서관의 기본 기능으로서 부여될 수 있다. 한국적인 맥락에서 공공도서관의 지역성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요구에 대응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 제시된다. **정보화**에 대해서 공공도서관은 정보기술과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야 하며, 정보화가 초래하는 사회내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이러한 발전 방향은 현재의 사회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며, 동시에 미래의 공공도서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도서관계에 광범위한 합의하에 형성된 “공공도서관 다움”과 ‘마땅히 공공도서관은 이래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을 여기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용하고 있다.

## 제 2 절 공공도서관 관련 정책

### 1. 중앙정부의 정책

#### 1)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정보화 정책

문화관광부는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문화관광부는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계획’을 통해 정보화의 추세에 따른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sup>2)</sup>

##### ○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

공공도서관의 공간 변화에 두드러진 것은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은 2001부터 시작하여 2003까지 진행되어 공립 공공도서관 375개에 디지털 자료실 조성하였다.

##### ○ 국립디지털 도서관 추진 사업

국립 디지털 도서관 건립 추진은 2002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에 완공할 목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디지털콘텐츠의 국가센터 및 디지털 문화 창출과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미래형 국가대표도서관을 지향함을 제시하고 있다.

##### ○ 도서관 정보 네트워크 구축 사업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보급과 도서 정보체제를 정비하면서 2003년에 완료하여 공공도서관 상호간에 도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국 단위의 도서관 정보네트워크가 구현되어 공공도서관은 물론 대학, 전문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록 검색이 가능해지게 되었

---

2)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여러 이견이 제시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평가를 유보하고자 한다. 다만 이 개획 사업 이후에 공공도서관에서 자료 검색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판적인 견해에서는 이것이 정보화 시대의 도서관이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전체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

## ○ 연계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

도서관 연계망 정책은 법적인 사항으로 현재의 상황은 정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연계망 구축의 예산과 추진의 전담을 각 지역 대표관 및 단위 공공도서관 자체 확보로 하고 있다. 정보화 기술을 응용한 사업에서 도서관정보시스템 사용을 통한 정보 이용 표준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계에 의한 도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도서관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도서자원의 장서 관리와 공동 보존과 같은 공동 활용과 이용에 있어 상호 대차 등은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 분야는 공공도서관 현실에서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서관 정책

교육인적자원부에서의 제시되고 있는 도서관정책은 공공도서관 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비록 현재 도서관 정책의 관할부서는 아니지만, 교육청 관할하에 있는 시립도서관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공공도서관의 일부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의 이념에 부합되는 면을 보이나 기존의 도서관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 ○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해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단위 민관 협력 운동 활성화를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의 담당기관인 교육청과 협력 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의 공공도서관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공공도서관의 ‘공부방화’는 학교도서관이 충실히 기능하지 못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

을 이용하게 되면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굳이 학과 시험준비를 하는 유인은 결여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은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3) 도서관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 방향

#### ○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관련 법규들

현재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법들은 상호관련되어 법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도서관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건교부가 주무부서로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설치 및 관리가 부여되어 있다. 최근에 공공도서관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디지털자료실은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다양한 규정과 법들은 공공시설로써 공공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방향을 만들어내고 있다.

<표 2-2>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관련 법규

| 구 분                 | 관련법규                          | 주요 조항  |
|---------------------|-------------------------------|--|
| 공공도서관의 운영           | 도서관및독서진흥법(문화관광부)              | 제3장공공도서관규정<br>제19조(설립)~제30조(자료의 제출)            |
| 평생학습관의 운영           | 평생교육법(교육인적자원부)                | 제13조(평생교육센터등의 운영)<br>제14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      |
| 도서관의 설립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 | 제102조(도서관)<br>제103조(도서관의 결정기준)                 |
|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설치 및 관리 | 지방자치법(행정자치부)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br>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 디지털자료실 구축           | 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통신부)               | 제11조(공공정보화등의 추진)                               |
| 디지털자료실 구축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정보통신부)            | 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

#### ○ 법적 기준에 대한 개정 논의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서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도서관의 적용범위 관련 조항 신설,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 개정, 온라인저작물의 납본근거 마련 등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보완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개정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도서관 발전을 체계적·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연차별 계획 수립 추진 의무화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서관 발전 계획의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는 정책 지향의 일부로 문화정책의 지방분권화와 연관성을 지니는데,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과 발전방향의 수립의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수도권 자치단체의 정책

### 1) 서울시의 도서관 확충 계획

서울시는 2003년 [문화도시 서울을 향한 정책 구상]에서 도서관 확충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 관광부가 1995년에 제시하였던 [1구 1 도서관] 정책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완료하고,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1995년부터 주민생활 근거지에 200~400석의 소규모 도서관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봉문화정보센터,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아리랑정보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동구 등에서 작은 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으며, 13개 자치구(2003년 기준)에서 향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30~80% 차등 지원하고 있다.

#### ○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확충

2003년 이후 서울시는 대규모 단독시설로의 신규도서관 건립은 지양하고, 자치구 공공시설 건립시 100~200석 내외의 소규모 복합시설로 건립을 유도하게 되었다. 이것은 서울시에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유흥지 활용의 여건이 나쁜 상황



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복합화, 공공시설 리모델링,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계획은 2006년까지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100개소 확충하는데 공공시설 복합화 10개소, 공공시설 리모델링 50개소, 학교시설 복합화 15개소, 학교도서관 개방 25개소를 확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표 2-3> 서울시 도서관 확충계획의 주요 내용

| 구 분          | 사 업 내 용   |
|--------------|---|
| 공공시설<br>복합화  | 신규건립하는 자치구의 각종 공공시설 내 소규모 도서관의 복합화시설로 건립 유도                     |
| 공공시설<br>리모델링 | 자치구의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 시설 통·폐합, 조정 방식으로 소규모 마을도서관 리모델링        |
| 학교시설<br>복합화  |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시 공공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유치                                  |
| 학교도서관<br>개방  | 기존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추진<br>-방과후 및 수업이 없는 날 개방 조건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지원 |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간접적인 위치에 있다. 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공공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에 따라 게재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운영의 주체가 자치구에 설정되어 있기에, 건립에 대한 지원만이 있을 뿐이다.

## 2) 서울시교육청의 도서관 정책

서울시교육청의 도서관 정책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에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정보자료센터화 추진, 학교도서관에 종합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자료실 설치,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지원,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연구학교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정책은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디지털자료실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도서관 도서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공도서관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은 기존의 공공도서관 정보화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 3) 경기도와 인천의 공공도서관 계획

- 경기도는 공공도서관 설립을 중심으로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4년 도서관 사업 발표하면서 도서관 건립 계획으로 2006년까지 공공도서관 106개를 목표로 인구 10만 명당 도서관 1곳 조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중점사업의 하나로써 수원에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추진하는데, 수원시 권선구에 200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4천평 규모로 전액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수행해 온 학교도서관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하였다.
- 인천광역시 역시 공공도서관 신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2003년에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해 현재 공공도서관 9개에서 2007년까지 26개로 증설할 것을 계획하고 어린이 전용 도서관 8곳, 테마도서관 2곳, 보존도서관 1곳을 포함하여 포함 17개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제 III 장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과 시민 이용

### 제 1 절 공공도서관 시설과 규모

#### 1. 분포와 운영 형태

##### 1) 지역별 분포와 연혁

공공도서관은 <그림 3-1>와 같이 서울시 전역에 분포한다.<sup>3)</sup>



<그림 3-1> 서울시 공공도서관 분포

3) 분포도의 바탕색은 서울의 도시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대생활권(大生活圈)을 나타낸다.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25개 자치구를 지리적 위치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5대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 생 활 권 | 해당 자치구                                  |
|-------|---|
| 도심생활권 | 종로구, 용산구, 중구                            |
| 동북생활권 |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 서북생활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 서남생활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 동남생활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40개의 공립과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립공공도서관의 경우, 중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 시립공공도서관 22개, 구립공공도서관 12개가 있다. 서울시 공립 공공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자치구당 1.32개에 지나지 않는다.

<표 3-1> 자치구별 공공도서관

| 지 역  | 계  | 시 립                      | 구 립                      | 사 립  |
|------|----|--------------------------|--------------------------|--|
| 강남구  | 2  | 강남도서관, 개포도서관             | -                        | -  |
| 강동구  | 2  | 강동도서관,<br>고덕평생학습관        | -                        | -  |
| 강북구  | 2  | -                        | 강북문화정보센터,<br>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 -  |
| 강서구  | 1  | 강서도서관                    | -                        | -  |
| 관악구  | 1  | -                        | 관악도서관                    | -  |
| 광진구  | 1  | -                        | 광진정보도서관                  | -  |
| 구로구  | 3  | 구로도서관, 고척도서관             | -                        | 오류도서관  |
| 금천구  | 1  | -                        | 금천구립정보도서관                | -  |
| 노원구  | 2  | 중계평생학습관                  | 노원어린이도서관                 | -  |
| 도봉구  | 2  | 도봉도서관                    | 도봉문화정보센터                 | -  |
| 동대문구 | 1  | 동대문도서관                   | -                        | -  |
| 동작구  | 1  | 동작도서관                    | -                        | -  |
| 마포구  | 2  | 마포평생학습관<br>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 -                        | -  |
| 서대문구 | 1  | 서대문도서관                   | -                        | -  |
| 서초구  | 0  | -                        | -                        | -  |
| 성동구  | 1  | -                        | 성동문화정보센터                 | -  |
| 성북구  | 2  | -                        | 성북정보도서관<br>아리랑정보도서관      | -  |
| 송파구  | 1  | 송파도서관                    | -                        | -  |
| 양천구  | 1  | 양천도서관                    | -                        | -  |
| 영등포구 | 1  | 영등포평생학습관                 | -                        | -  |
| 용산구  | 2  |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             | -                        | -  |
| 은평구  | 1  | -                        | 은평구립도서관                  | -  |
| 종로구  | 7  | 정독도서관<br>종로도서관<br>어린이도서관 | -                        | 학산기술도서관<br>4.19혁명기념도서관<br>한국사회과학도서관<br>LG상남도서관 |
| 중 구  | 1  | -                        | -                        | 한국학생도서관  |
| 중랑구  | 1  | -                        |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  |
| 계    | 40 | 22                       | 12                       | 6  |

<표 3-2> 서울의 공공도서관 개관연도

| 도 서 관    | 개 관  | 비 고 | 도 서 관       | 개 관  | 비 고 |
|----------|------|-----|-------------|------|-----|
| 종로도서관    | 1920 | 시립  | 중계평생학습관     | 1990 | 시립  |
| 남산도서관    | 1922 | "   | 양천도서관       | 1990 | "   |
| 동대문도서관   | 1971 | "   | 동작도서관       | 1991 | "   |
| 영등포평생학습관 | 1974 | "   | 송파도서관       | 1994 | "   |
| 정독도서관    | 1977 | "   | 마포평생학습관**   | 1995 | "   |
| 어린이도서관   | 1979 | "   | 금천구립정보도서관   | 1999 | 구립  |
| 마포도서관*   | 1980 | "   |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1999 | "   |
| 용산도서관    | 1981 | "   | 성동문화정보센터    | 1999 | "   |
| 도봉도서관    | 1981 | "   | 광진정보도서관     | 2000 | "   |
| 강남도서관    | 1982 | "   | 강북문화정보센터    | 2001 | "   |
| 강서도서관    | 1983 | "   | 도봉문화정보센터    | 2001 | "   |
| 개포도서관    | 1984 | "   | 은평구립도서관     | 2001 | "   |
| 강동도서관    | 1984 | "   |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 2001 | "   |
| 고덕평생학습관  | 1984 | "   | 성북정보도서관     | 2002 | "   |
| 구로도서관    | 1984 | "   | 관악문화관도서관    | 2002 | "   |
| 서대문도서관   | 1986 | "   | 노원어린이도서관    | 2003 | "   |
| 고척도서관    | 1990 | "   | 아리랑정보도서관    | 2004 | "   |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마포도서관 확장이전 신축개관(1995)으로 기존 마포도서관은 마포도서관 아현분관으로 개칭됨.

## 2) 운영형태

- 시립공공도서관은 모두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그러나 구립공공도서관의 운영형태는 시립과 달리 구청관할 하에 자치구 운영, 민간법인 위탁, 자치구 출자 공단위탁 등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sup>4)</sup>
- 12개 구립공공도서관 가운데, 6개관은 지역의 문화원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고, 5개 구립공공도서관은 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노원어린이도서관은 노원구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장단점과 관련된 논의는 학계나 관련

4)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은 1998년 국가예산기획처에서 정부사업의 민간이양을 추진하면서 이후 공무원총정원제도와 행자부의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1998.12.22)'의 영향이 큼이 지적되고 있음. 김달식(2001) "공공도서관 위탁의 문제" 경기도사서연구회지 제6권1호.

종사자 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sup>5)</sup>

<표 3-3> 구립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

| 도 서 관       | 운영주체       | 비 고         |
|-------------|------------|-------------|
| 강북문화정보센터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강북구 100% 출자 |
|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강북구 100% 출자 |
| 관악정보도서관     | 관악문화원      | 민간위탁        |
| 광진정보도서관     | 광진문화원      | 민간위탁        |
| 금천구립정보도서관   | 금천문화원      | 민간위탁        |
| 노원어린이도서관    | 노원구청       | 자치구 직접 운영   |
| 도봉문화정보센터    | 도봉문화원      | 민간위탁        |
| 성동문화정보센터    | 성동문화원      | 민간위탁        |
| 성북정보도서관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성북구 100% 출자 |
| 아리랑정보도서관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성북구 100% 출자 |
| 은평구립도서관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 민간위탁        |
|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 중랑구 100% 출자 |

## 2. 대상인구와 시설수준 비교

### 1) 도서관별 지역 대상인구

○ 문화관광부의 공공도서관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471개 관이며, 1개관 당 인구는 102,732명이다. 시·도별 공공도서관 분포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66개관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북도 50개관, 전라남도 44개관, 경상남도 42개관, 서울 40개관의 순이다.

○ 시·도별 공공도서관 1개관 당 인구수를 보면, 인구 1,072,867명에 4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 울산이 268,21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이다. 서울시는 1개관

5) 도서관 운영에 있어 운영 주체의 문제는 조직과 인사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도서관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운영주체의 차이가 도서관의 성과와 시민 이용에 영향을 보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 그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면을 보여준다. 또한 운영 사정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와 분석은 유보하기로 하였다. 도서관 연구에 있어서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당 인구수는 254,357명이다.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1개관 당 인구수는 154,649명으로 서울시 보다 100,000명 정도 적다.

<표 3-4> 시·도별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현황

| 구분 | 인구(명)      | 공공도서관 |     |     |    | 1개관 당<br>인구수 |
|----|------------|-------|-----|-----|----|--------------|
|    |            | 계     | 교육청 | 시·도 | 사립 |              |
| 서울 | 10,174,265 | 40    | 22  | 12* | 6  | 254,357      |
| 인천 | 2,570,194  | 11    | 8   | 3   | 0  | 233,654      |
| 경기 | 10,206,851 | 66    | 8   | 57  | 1  | 154,649      |
| 전국 | 48,387,007 | 471   | 222 | 238 | 11 | 102,732      |

\*2004년 5월 개관하는 아리랑정보도서관 포함됨.

자료: 2003년도 공공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 문화관광부, 2004.

-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도서관 현황은, 종로구가 공공도서관 7개관(시립공공도서관 3개관, 사립공공도서관 4개관)으로 가장 많다. 공공도서관 1개관 당 인구수는 송파구가 가장 많고,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순이다.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종로구는 공공도서관 대상인구가 1개관 당 25,920명으로 가장 적다.
- 자치구의 인구 여건을 고려하면, 앞서 말한 종로구의 1개관 당 대상인구 25,920명에 비해 송파구의 경우는 623,267명으로 지역별 격차가 현격하다. 이러한 지역간 격차는 서울의 인구 성장과 영역 확대 및 자치구의 분할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1개관당 인구수가 적고, 인구 성장에 따라 서울의 확대 및 자치구의 분할을 경험한 지역은 1개관당 인구수가 많다. 이것은 공공도서관 설립이 지역의 인구 성장에 따른 지역적인 수요에 부응하여 추가로 신설하지 못한 결과이다.

<표 3-5> 자치구별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현황

| 구분   | 인구*     | 공공도서관 |    |    |    | 1개관 당<br>인구수 |
|------|---------|-------|----|----|----|--------------|
|      |         | 계     | 시립 | 구립 | 사립 |              |
| 강남구  | 536,031 | 2     | 2  | -  | -  | 268,016      |
| 강동구  | 479,270 | 2     | 2  | -  | -  | 239,635      |
| 강북구  | 362,094 | 2     |    | 2  | -  | 181,047      |
| 강서구  | 539,673 | 1     | 1  | -  | -  | 539,673      |
| 관악구  | 526,971 | 1     | -  | 1  | -  | 526,971      |
| 광진구  | 388,659 | 1     | -  | 1  | -  | 388,659      |
| 구로구  | 419,438 | 3     | 2  | -  | 1  | 139,813      |
| 금천구  | 267,355 | 1     | -  | 1  | -  | 267,355      |
| 노원구  | 633,934 | 2     | 1  | 1  | -  | 316,967      |
| 도봉구  | 378,166 | 2     | 1  | 1  | -  | 189,083      |
| 동대문구 | 386,814 | 1     | 1  | -  | -  | 386,814      |
| 동작구  | 413,204 | 1     | 1  | -  | -  | 413,204      |
| 마포구  | 383,629 | 2     | 2  | -  | -  | 191,815      |
| 서대문구 | 361,754 | 1     | 1  | -  | -  | 361,754      |
| 도봉구  | 378,166 | 2     | 1  | 1  | -  | 189,083      |
| 성동구  | 343,929 | 1     | -  | 1  | -  | 343,929      |
| 성북구  | 456,535 | 2     | -  | 2  | -  | 228,268      |
| 송파구  | 623,267 | 1     | 1  | -  | -  | 623,267      |
| 양천구  | 489,257 | 1     | 1  | -  | -  | 489,257      |
| 영등포구 | 410,952 | 1     | 1  | -  | -  | 410,952      |
| 용산구  | 240,723 | 2     | 2  | -  | -  | 120,362      |
| 은평구  | 476,843 | 1     | -  | 1  | -  | 476,843      |
| 종로구  | 181,441 | 7     | 3  | -  | 4  | 25,920       |
| 중 구  | 138,798 | 1     | -  | -  | 1  | 138,798      |
| 중랑구  | 438,011 | 1     | -  | 1  | -  | 438,011      |

\*2003년 서울시주민등록인구 서울시홈페이지 통계DB검색

자료: 2003년도 공공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 문화관광부, 2004.

## 2) 시설규모

-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부지면적은 176,108㎡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다음으로 넓고, 건물면적은 162,362㎡로 경기도 다음으로 넓다. 열람석 당 인구수는 서울이 36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균인 열람석당 206명 보다 16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도서관 시설규모에 있어 종로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열람석 당 인구수는 종로구가 41명으로 가장 적고, 반면에 관악구의 열람석 당인구수는 1,348명으로 가장 많다.

<표 3-6> 시·도별 공공도서관 시설규모 현황

| 구분 | 인구(명)      | 시설규모      |           |         | 1석당<br>인구수 |
|----|------------|-----------|-----------|---------|------------|
|    |            | 부지(㎡)     | 건물(㎡)     | 열람석(석)  |            |
| 서울 | 10,174,265 | 176,108   | 162,362   | 27,688* | 367        |
| 인천 | 2,570,194  | 52,917    | 42,408    | 8,946   | 287        |
| 경기 | 10,206,851 | 1,195,052 | 224,882   | 38,499  | 265        |
| 전국 | 48,387,007 | 3,101,368 | 1,202,210 | 235,364 | 206        |

\*2004년 5월 개관하는 아리랑정보도서관의 열람석 수 제외됨.

자료: 2003년도 공공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 문화관광부, 2004.

#### ○ 시립과 구립도서관의 시설 규모

사립공공도서관을 제외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비교에서, 시립공공도서관이 구립공공도서관에 비해 시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시립공공도서관의 평균 부지는 5,676㎡, 건물은 4,648㎡, 열람석은 840석이며, 11개 구립공공도서관의 평균 부지는 3,748㎡, 건물은 4,114㎡, 열람석은 713석이다. 개별 도서관에서 보면, 정독도서관<sup>6)</sup>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이며, 구립공공도서관에서 성북정보도서관이 건물과 열람석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표 3-7> 서울의 공공도서관의 시설규모

| 구분            | 도서관  | 부지(㎡) | 건물(㎡) | 열람석(석) | 시청각실(㎡) |
|---------------|------|-------|-------|--------|---------|
| 시립<br>(22개)   | 평균규모 | 5,676 | 4,648 | 840    | 122     |
| 구립**<br>(11개) | 평균규모 | 3,748 | 4,114 | 713    | 164*    |

\*노원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10개 구립공공도서관 시청각실의 평균 넓이

\*\*아리랑정보도서관 제외

\*\*\*사립공공도서관 제외

자료: 2003년도 공공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 문화관광부, 2004.

6) 정독도서관은 경기고등학교의 강남이전으로 그 시설을 도서관으로 사용하여 왔다. 처음부터 도서관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이 아니기에 여기에서의 비교는 한계를 지닌다.

### 3) 시설기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의 도서관 시설기준과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도서관의 시설 규모를 비교해 보았다. 도서관 규모에 있어서, 인구 13만 명인 중구가 도서관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 인구가 10만~30만 명인 경우, 도서관 건물은 1,65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중구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 30만~50만 명인 경우, 도서관 건물은 3,300㎡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작구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의 건물규모는 4,9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표 3-8>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기준

| 봉사대상기준인구(인) | 건물(㎡)   | 열람석(좌석수) |
|-------------|---------|----------|
| 2만미만        | 264이상   | 60이상     |
| 2만이상 5만미만   | 660이상   | 150이상    |
| 5만이상 10만미만  | 990이상   | 200이상    |
| 10만이상 30만미만 | 1,650이상 | 350이상    |
| 30만이상 50만미만 | 3,300이상 | 800이상    |
| 50만이상       | 4,950이상 | 1,200이상  |

- 열람석 기준으로 보면, 건물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구가 봉사대상 인구 10만~30만 명에 해당하는 350석 이상 열람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0만~50만인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가 800석 이상인 열람석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인구 50만 이상인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송파구가 1,200석 이상인 열람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도서관 시설 기준에 따르면,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 서초구 공공도서관 경우에는 인구가 40만 명인 점을 고려하여 건물 3,300㎡ 이상에 열람석 800석 이상 규모를 갖춰야 한다.

### 3. 도서자원 수준

#### 1) 전국 공공도서관

- 전국 공공도서관의 도서자료는 2003년 현재 34,467,396권이며, 이는 국민 1인당 0.71권에 해당한다. 시·도별 공공도서관 자료현황을 보면,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도서자료가 6,020,687권으로 가장 많고, 1인당 책 수는 제주도가 1.62로 가장 높다. 연간 증가하는 책 수에 있어서는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1,163,065권으로 한 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증가하는 책의 27.0%를 차지한다.
-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소장 도서자료가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자료의 15.0%에 해당하는 5,175,751권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지만, 1인당 책 수로 보면 0.51권으로 전국 평균에 미달한다. 연속간행물과 시청각자료의 보유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시·도별 공공도서관 자료 현황

| 구분  | 인구(명)      | 자료         |        |           |           | 1인당<br>책 수 |
|-----|------------|------------|--------|-----------|-----------|------------|
|     |            | 도서자료       | 연속간행물  | 시청각자료     | 연간증가책수    |            |
| 서울* | 10,174,265 | 5,175,751  | 22,060 | 263,870   | 411,331   | 0.51       |
| 인천  | 2,570,194  | 1,259,981  | 4,145  | 49,460    | 149,523   | 0.49       |
| 경기  | 10,206,851 | 6,020,687  | 19,712 | 235,853   | 1,163,065 | 0.59       |
| 전국  | 48,387,007 | 34,467,396 | 96,598 | 1,285,953 | 4,303,125 | 0.71       |

\*아리랑정보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제외

자료: 2003년도 공공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 문화관광부, 2004.

#### 2) 자치구별 공공도서관

-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종로구의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가 968,134권으로 가장 많고, 1인당 책 수도 5.34권으로 가장 높다. 종로구는 시립 공공도서관 3개와 사립 공공도서관 4개 전체 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자치구별 공공도서관의 1인당 책 수는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자치구별 공공도서관 자료 현황

| 구분    | 인구*     | 자료      |       |         |         | 1인당<br>책 수(권) |
|-------|---------|---------|-------|---------|---------|---------------|
|       |         | 도서자료    | 연속간행물 | 시청각자료   | 연간증가책수  |               |
| 강남구   | 536,031 | 307,541 | 1,351 | 4,681   | 10,074  | 0.57          |
| 강동구   | 479,270 | 319,796 | 1,536 | 7,812   | 11,693  | 0.67          |
| 강북구   | 362,094 | 111,222 | 361   | 8,732   | 22,389  | 0.31          |
| 강서구   | 539,673 | 201,769 | 445   | 4,068   | 9,946   | 0.37          |
| 관악구   | 526,971 | 53,964  | 129   | 2,061   | 15,000  | 0.10          |
| 광진구   | 388,659 | 64,672  | 481   | 4,842   | 14,016  | 0.17          |
| 구로구   | 419,438 | 279,104 | 943   | 9,018   | 1,637   | 0.67          |
| 금천구   | 267,355 | 62,529  | 102   | 3,424   | 22,801  | 0.24          |
| 노원구   | 633,934 | 181,129 | 623   | 3,553   | 7,356   | 0.29          |
| 도봉구   | 378,166 | 238,099 | 722   | 10,544  | 13,327  | 0.63          |
| 동대문구  | 386,814 | 229,488 | 391   | 7,118   | 6,408   | 0.60          |
| 동작구   | 413,204 | 92,069  | 526   | 3,150   | -23,547 | 0.22          |
| 마포구   | 383,629 | 289,763 | 1,536 | 17,644  | 20,637  | 0.76          |
| 서대문구  | 361,754 | 159,607 | 612   | 4,156   | 4,570   | 0.44          |
| 서초구   | 400,220 | -       | -     | -       | -       | -             |
| 성동구   | 343,929 | 70,310  | 399   | 5,042   | 10,000  | 0.20          |
| 성북구** | 456,535 | 59,139  | 371   | 2,226   | 27,738  | 0.13          |
| 송파구   | 623,267 | 156,123 | 876   | 3,245   | 13,765  | 0.25          |
| 양천구   | 489,257 | 210,091 | 583   | 5,991   | 8,692   | 0.43          |
| 영등포구  | 410,952 | 238,792 | 558   | 4,198   | -3,047  | 0.58          |
| 용산구   | 240,723 | 655,663 | 1,904 | 14,404  | 27,295  | 2.72          |
| 은평구   | 476,843 | 92,330  | 585   | 5,743   | 23,282  | 0.19          |
| 종로구   | 181,441 | 968,134 | 6,637 | 125,262 | 148,730 | 5.34          |
| 중구    | 138,798 | 42,170  | 190   | 355     | 956     | 0.30          |
| 종랑구   | 438,011 | 92,247  | 199   | 6,601   | 17,613  | 0.21          |

\*2003년 서울시주민등록인구 서울시홈페이지 통계DB검색

\*\*아리랑정보도서관의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제외

자료: 2003년도 공공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결과, 문화관광부, 2004.

### 3) 자료기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의 도서관 자료기준과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자료규모를 비교해 보았다. 봉사대상 인구에 대한 공공도서관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전체 공공도서관의 도서자료 수로 비교해 보았다.

자치구 인구가 10만~30만 명인 금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의 경우, 봉사대상 기준인구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기본장서는 3만권 이상 보유하는 것인데, 모두 기

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0만~50만 명인 경우, 기본장서는 9만권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의 경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은 15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02년에 개관한 관악구의 관악도서관은 봉사대상 인구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장서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공공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는 서초구의 경우, 인구가 40만인 점을 감안하면, 도서관의 기본장서는 적어도 9만권 정도 있어야 한다.

<표 3-11>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자료기준

| 봉사대상기준인구(인) | 기본장서(권)   | 연간증가(권)  |
|-------------|-----------|----------|
| 2만미만        | 3,000이상   | 300이상    |
| 2만이상 5만미만   | 6,000이상   | 600이상    |
| 5만이상 10만미만  | 15,000이상  | 1,500이상  |
| 10만이상 30만미만 | 30,000이상  | 3,000이상  |
| 30만이상 50만미만 | 90,000이상  | 9,000이상  |
| 50만이상       | 150,000이상 | 15,000이상 |

- 도서관 마다 해마다 증가시켜야 하는 책 수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자치구별로 비교해 보았다. 먼저 인구 10만~30만 명인 자치구 중에서 중구의 공공도서관은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증가 책 수인 3천권에 비해 낮았다. 인구 30만~50만인 구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인구 50만 이상인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소재 공공도서관이 연간 증가 책 수인 1만5천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 4. 공공도서관 보급 수준 취약

- 서울의 공공도서관의 현황은 ‘문화도시’를 선언한 서울의 정책 방향과 어울리지 않게 전국적으로 볼 때 취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서자원의 측면에서는 서울

시민은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도시의 공공 문화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분포 및 보급은 취약한 수준이다.

- 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서울시 인구에 비해서 공공도서관은 수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이 구비하고 있는 열람석, 공공도서관의 도서자원 등에서 취약하다. 또한, 문화에 대한 공공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예산의 측면에서도 취약한 상황이다.
-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현재 40개관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보면 자치구당 1.6개 도서관이 있는 정도다. 서울시 인구로 보면 도서관 1개관이 시민 254,357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에서 도서관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 6만명당 1개관 수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다.

## 제 2 절 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행태

### 1. 이용행태

#### 1) 이용자 일반적 특성

- 서울의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는 도서관을 선정하여 이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본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평일 낮시간에 주로 20대와 30대가 이용자의 67.5%를 차지한다. 주부들은 주로 문화강좌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성별은 큰 차이가 없다. 연령으로 20, 30대, 직업으로 대학(원)생이나 취업·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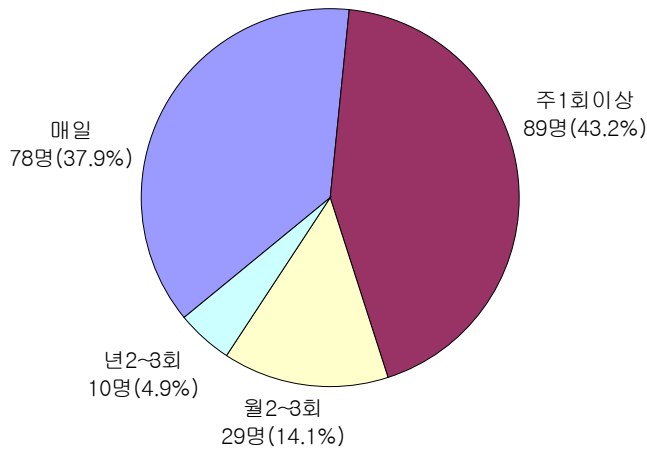
<표 3-12> 도서관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        | 은평        | 성동        | 영등포       | 용산        | 강남        | 계          |
|-----|--------|-----------|-----------|-----------|-----------|-----------|------------|
| 성별  | 남성     | 17(40.5)  | 16(44.4)  | 11(26.2)  | 21(48.8)  | 16(43.2)  | 81(40.5)   |
|     | 여성     | 25(59.5)  | 20(55.6)  | 31(73.8)  | 22(51.2)  | 21(56.8)  | 119(59.5)  |
| 연령  | 10대    | 1(2.4)    | 2(5.6)    | 2(4.8)    | 12(27.9)  | 5(13.5)   | 22(11.0)   |
|     | 20대    | 19(45.2)  | 16(44.4)  | 23(54.8)  | 10(23.3)  | 15(40.5)  | 83(41.5)   |
|     | 30대    | 11(26.2)  | 7(19.4)   | 13(31.0)  | 12(27.9)  | 9(24.3)   | 52(26.0)   |
|     | 40대    | 5(11.9)   | 7(19.4)   | 3(7.1)    | 6(14.0)   | 3(8.1)    | 24(12.0)   |
|     | 50대 이상 | 6(14.3)   | 4(11.1)   | 1(2.4)    | 3(7.0)    | 5(13.5)   | 19(9.5)    |
| 계   |        | 42(100.0) | 36(100.0) | 42(100.0) | 43(100.0) | 37(100.0) | 200(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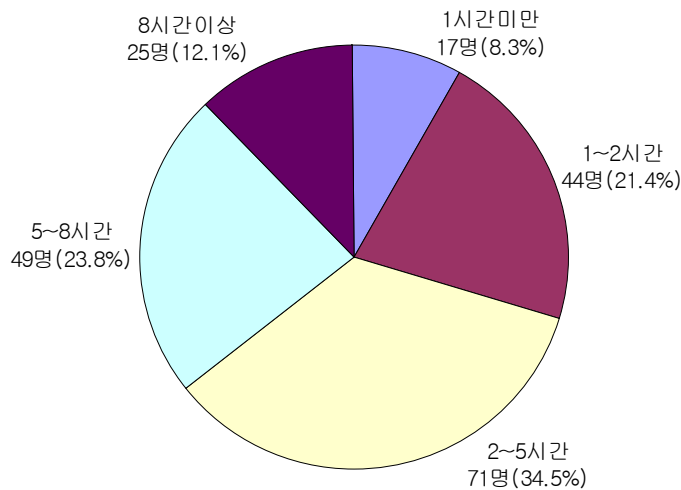
#### 2)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

-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 도서관에 오는 사람이 43.2%, 매일 오는 사람도 37.9%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관을 한번 이용하게 되면, 수시로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 도서관 이용횟수

- 도서관 이용횟수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남성과 여성 이용자 모두 상시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직업별 도서관 방문 횟수에서 대학(원)생과 취업진학준비 이용자는 도서관에 거의 매일 오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51.8%와 66.7%로 상당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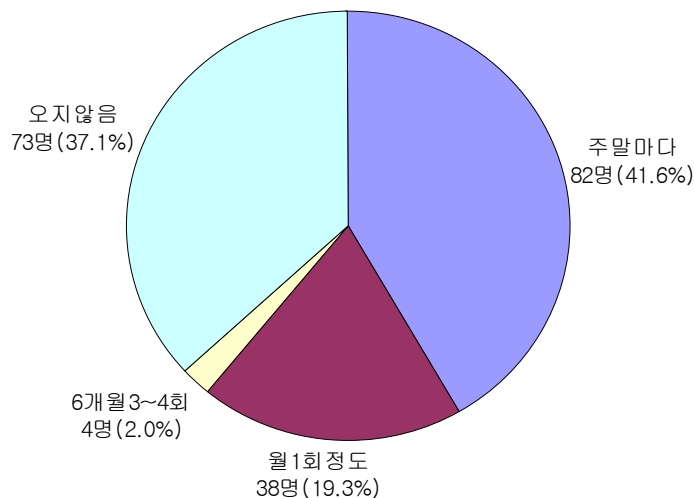


<그림 3-3> 도서관 이용시간

- 이용자들의 34.5%가 도서관을 2~5시간 이용하고 있으며, 23.8%가 5~8시간 이용하고 있다. 반나절 정도 도서관에 머무르는 사람이 가장 많지만, 그 이상 장시



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4> 도서관 주말이용

-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주말에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사에서도 이용자의 41.6%는 주말마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19.3%는 월 1회 정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60.9%는 적어도 한달에 한 번 짬을 주 주말에도 도서관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지역별 다른 공공도서관의 이용행태

- 최근 6개월 이내 다른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50.5%(99명)는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하고, 49.5%(97명)는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표 3-13> 다른 공공도서관 이용행태

| 구분      | 빈도  | 백분율(%) |
|---------|-----|--------|
| 이용경험 있음 | 97  | 49.5   |
| 이용경험 없음 | 99  | 50.5   |
| 계       | 196 | 100.0  |

- 서울시를 생활권별로 나누어 각 생활권에서 선정한 도서관 이용자들이 서울의 다른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경험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서북생활권에 위치한 은평구립도서관의 이용자들은 도심권의 정독도서관과 같은 서북권에 있는 서대문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북생활권의 성동문화정보센터 이용자들은 같은 동북권에 있는 동대문도서관이나 광진정보도서관 그리고 도심권의 남산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남생활권의 영등포평생학습관 이용자들은 서북권의 마포평생학습관을 이용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도심생활권의 용산도서관 이용자들은 주로 같은 생활권에 있는 남산도서관을 이용한다. 동남생활권의 강남도서관 이용자들도 같은 생활권의 개포도서관이나 송파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서관의 이용 행태를 보면 자료이용을 전제로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울시 전역에서 접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광역적인 이용 특성을 보여준다. 도심권을 서울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이 용이하기에 서울 전역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면을 보여주는 반면에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자치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한정되지 않고 대생활권을 포괄하는 광역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서울 전역이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도서관과 관련하여서는 시민의 이용권역이 대생활권과 도심권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5> 다른 도서관 이용 빈도(은평구립도서관)



<그림 3-6> 다른 도서관 이용 빈도(성동문화정보센터)



<그림 3-7> 다른 도서관 이용 빈도(영등포평생학습관)



<그림 3-8> 다른 도서관 이용 빈도(용산도서관)



<그림 3-9> 다른 도서관 이용 빈도(강남도서관)

### 제 3 절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프로그램

#### 1. 물리적 환경의 제약

##### 1) 시설 부족과 접근성

-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 이용자 대부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관에 오는 데 20분 이상 소요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5%에 이르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수적인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도서관까지 도보로 이용할 경우 보통 1.5km가 넘다고 볼 수 있다. 48.1%가 도보를 이용하고,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마음먹고 가지 않는 이상 쉽게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4> 이용자의 거주지

| 구분                 | 빈도  | 백분율(%) |
|--------------------|-----|--------|
| 공공도서관과 같은 동        | 58  | 29.4   |
| 같은 동은 아니지만 동일한 자치구 | 80  | 40.6   |
| 인접한 자치구            | 29  | 14.7   |
| 인접하지 않은 자치구        | 23  | 11.7   |
| 수도권                | 7   | 3.6    |
| 계                  | 197 | 100.0  |

<표 3-15> 이용자의 교통수단

| 구분   | 빈도  | 백분율(%) |
|------|-----|--------|
| 걸어온다 | 99  | 48.1   |
| 마을버스 | 10  | 4.9    |
| 버스   | 58  | 28.2   |
| 지하철  | 25  | 12.1   |
| 자가용  | 8   | 3.9    |
| 기타   | 6   | 2.9    |
| 계    | 206 | 100.0  |

<표 3-16> 도서관 방문 소요시간

| 구분     | 빈도  | 백분율   |
|--------|-----|-------|
| 10분 이하 | 31  | 15.8  |
| 10~20분 | 66  | 33.7  |
| 20~30분 | 57  | 29.1  |
| 30~60분 | 32  | 16.3  |
| 1시간 이상 | 10  | 5.1   |
| 계      | 196 | 100.0 |

## 2) 일반열람실과 자료열람실의 불균형

-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나타나는 열람실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공공도서관은 이용과 자료에 따라 디지털열람실, 자료열람실, 일반열람실, 어린이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디지털열람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를 이어 자료열람실, 어린이실로 나타났고 일반열람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일반열람실의 만족도에서 열람석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디지털열람실은 ‘공공도서관 디지털열람실 조성 사업’으로 모든 도서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다른 열람실에 비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디지털자료실은 항상 이용자들이 차있고 예약 대기 상태에 있다.

<표 3-17> 열람실별 만족도

| 구분        | 자료열람실 | 일반열람실 | 디지털열람실 | 어린이열람실 |
|-----------|-------|-------|--------|--------|
| 이용시간      | 3.58  | 3.58  | 3.27   | 3.66   |
| 분위기       | 3.73  | 3.49  | 3.80   | 3.50   |
| 시설        | 3.60  | 3.37  | 3.89   | 3.55   |
| 소장도서 및 자료 | 3.30  | -     | 3.51   | 3.42   |
| 열람석수      | 3.26  | 2.86  | 3.51   | 3.45   |
| 개인공간      | -     | 3.25  | -      | -      |
| 종합만족도     | 3.48  | 3.38  | 3.77   | 3.45   |

주: 5점 척도

- 일반열람실은 좌석의 부족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도서관계는 일반

열람실의 축소가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자료열람실도 늘어나는 자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고가 부족하고, 이렇게 자료 열람실도 늘어나는 자료와 일반열람실의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공간부족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욕구가 증대할 것이다.

### 3) 시설 이용의 만족도 차이

- 열람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의 이용만족도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직원 서비스나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자가 열람실 이외에도 도서관을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만족도를 도서관의 환경, 직원 서비스, 주변 환경, 편의시설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편의시설이 이용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개별 도서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도서관의 식당, 화장실, 식수 등에서 이용자에게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서관 직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18> 이용 항목별 만족도

| 구분       | 응답자 | 만족도평균 | 표준편차  |
|----------|-----|-------|-------|
| 직원의 서비스  | 198 | 3.48  | 0.732 |
| 주변 환경    | 198 | 3.44  | 0.834 |
| 편의시설     | 199 | 3.22  | 0.953 |
| 내부 공간 배치 | 198 | 3.37  | 0.754 |
| 건물외관     | 198 | 3.34  | 0.802 |

주: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

## 2.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 1) 교양·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기대 사항

-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87.9%에서 교양·문화프로그램을 기획·담당하는 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평생학습관과 노원어린이도



서관은 문화교실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교양·문화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것이 아닌, 사서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표 3-19> 프로그램 기획·관리담당 인력

| 구분 | 조사대상 | 프로그램 담당 인력 | 백분율(%) |
|----|------|------------|--------|
| 시립 | 22   | 18         | 81.8   |
| 구립 | 11   | 11         | 100.0  |
| 합계 | 33   | 29         | 87.9   |

- 교양·문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원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천도서관은 프로그램 종료 후 참석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도서관, 강서도서관, 영등포평생학습관 등에서도 프로그램 실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의시설의 개선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프로그램 참여자의 건의사항 반영

| 구분 | 조사대상 | 건의사항 반영 | 백분율(%) |
|----|------|---------|--------|
| 시립 | 22   | 22      | 100.0  |
| 구립 | 11   | 10      | 90.9   |
| 전체 | 33   | 32      | 97.0   |

- 주로 주중에 교양·문화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야간생활시간의 증가에 따라 공공도서관도 시민의 생활패턴에 맞는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22개에서 문화프로그램을 계획·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관의 야간강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주말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 이용자들도 증가하면서, 각 도서관들은 독서프로그램 이외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족단위 프로그램은 빈약한 편이다.

하지만 몇몇 도서관에서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다른 도서관과 차별되는 프로그램

램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어린이극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대문도서관은 시조창작 모임이 있으며, 송파도서관은 주말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 가족영화상영이나 음악회를 계획·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 구분 | 조사대상 | 야간·주말프로그램실시 | 백분율(%) |
|----|------|-------------|--------|
| 시립 | 22   | 13          | 59.1   |
| 구립 | 11   | 9           | 81.8   |
| 전체 | 33   | 22          | 66.7   |

- 앞의 제시한 다섯 개 도서관 이용자들을 조사한 결과 시민의 교양·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3.47로 의 항목별 만족도에서 강의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3.71로 가장 높다. 강좌의 다양성은 만족도가 3.18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3-22> 교양·문화프로그램의 항목별 만족도

| 구분       | 응답자 | 만족도평균 | 표준편차  |
|----------|-----|-------|-------|
| 강의 내용    | 38  | 3.71  | 0.654 |
| 강좌의 다양성  | 38  | 3.18  | 0.730 |
| 강의 시설    | 38  | 3.58  | 0.758 |
| 종합적인 만족도 | 38  | 3.47  | 0.830 |

주: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

- 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 외에도 독서회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독서교실이 이후에 만들어지고 도서관은 독서회유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27개관에서 독서회 또는 문학회가 조직되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동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의 독서회가 매월 1회 운영되고 있고, 독서토론과 독후감 작성 및 발표,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동대문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주부 대상 독서회가 각각 운영 중에 있다.

어린이도서관의 ‘사직어린이독서연구회’는 아동문학 토론, 어린이독서지도 토론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함께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3> 독서회 · 문학회 운영

| 구분 | 조사대상 | 독서회 · 문학회 운영 | 백분율(%) |
|----|------|--------------|--------|
| 시립 | 22   | 21           | 95.5   |
| 구립 | 11   | 6            | 54.5   |
| 전체 | 33   | 27           | 81.8   |

- 독서회나 문학회가 활동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이들에게 모임을 위한 공간, 프로그램, 도서대출권수 확대, 문집발간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26개 도서관에서는 독서회나 문학회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있고, 14개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11개 도서관에서는 독서회 회원들에게 인센티브로써 도서대출 시 권수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독서회에 글짓기와 독서발표 등 참가 어린이를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4> 독서회 · 문학회 지원 형태

| 구분 | 모임공간지원 | 프로그램지원 | 대출권수확대 | 문집발간지원 | 기타 |
|----|--------|--------|--------|--------|----|
| 시립 | 20     | 10     | 8      | 2      | 6  |
| 구립 | 6      | 4      | 2      | 1      | 2  |
| 전체 | 26     | 14     | 10     | 3      | 8  |

## 2) 소외계층 지원 시설과 프로그램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시설조사에서 장애인열람실을 갖춘 공공도서관이 있는 반면,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열람실까지 갖추지 못한 도서관은 장애인의 이용을 돕는 유도블록, 화장실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이용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은 도서관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체계 등의 개

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부재는 물리적 편의시설의 완비보다 중요하다. 물리적인 장애인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서울시공공도서관 중에서 장애인을 위해 도서를 대출하여 직접 전달까지 해주는 장애인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 조사결과에서 서울시 공공도서관 가운데 장애인 열람실을 갖춘 도서관은 14개관 (42.4%)으로, 시립공공도서관은 6개관, 구립은 8개관에 장애인열람실이 있다.

<표 3-25> 장애인열람실 설치 현황

| 구분 | 조사대상 | 장애인열람실 | 백분율(%) |
|----|------|--------|--------|
| 시립 | 22   | 6      | 27.3   |
| 구립 | 11   | 8      | 72.7   |
| 전체 | 33   | 14     | 42.4   |

- 장애인열람실이 있는 14개 공공도서관은 주로 약시자시설과 점자도서, 장애인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다. 장애인열람실에 대면낭독시설을 갖춘 도서관은 은평구립도서관, 광진정보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이다. 특히 은평구립도서관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대면낭독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평구립도서관과 마포평생학습관의 장애인열람실은 장애인 자료 열람을 지원하는 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표 3-26> 장애인열람실의 자료 및 시설 현황

| 구분 | 점자도서 | 녹음도서 | 대면낭독시설 | 약시자시설 | 장애인용 컴퓨터시설 |
|----|------|------|--------|-------|------------|
| 시립 | 3    | 1    | 1      | 6     | 4          |
| 구립 | 8    | 7    | 2      | 8     | 7          |
| 합계 | 11   | 8    | 3      | 14    | 11         |

- 공공도서관에는 장애인열람실 이외 장애인들의 이용을 돕기 위해 장애인용 화장

실,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비록 장애인열람실이 없는 공공도서관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화장실과 장애인 보행을 위한 유도블럭은 거의 모든 공공도서관에 있다.

- 영등포평생학습관은 시각장애자 이외에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문고를 운영한다.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가정이나 직장으로 직접 책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며, 대출기간은 2개월에 대출도서는 20권이다.

#### ○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의 빈약

도서관 이용자의 78.5%가 청소년과 20~30대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장년 및 노년층의 이용률은 높지 않다. 즉, 공공도서관의 주요 이용자가 중·고등학생, 대학생인 관계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을 의미한다. 결국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3개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표 3-27> 노인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 노인 관련 프로그램                           |
|----------|--------------------------------------|
| 마포평생학습관  | 돋보기를 사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시각장애인실에서 녹음도서 대출   |
| 영등포평생학습관 | 비문해자 교육(국어, 영어, 수학), 어르신 정보화 교육(컴퓨터) |
| 광진정보도서관  | 어르신을 위한 마당놀이 상영                      |

이렇게 노인프로그램을 제공하는 3개 도서관을 제외하고, 노인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부족하다. 자료열람실에 약시자시설을 갖춘 도서관이 많지 않은 것도 노인들의 도서관 이용에 저해 요인이 된다.

### 3)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

-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하거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로인력을 활용한 공공도서관은 18개로 나타났다. 이들 연계 프로그램은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업무 보조

등 근로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서가관리 등 보조적인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18~30세의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3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하여 현장 연수와 인턴 경험을 쌓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마련한 프로그램이 아닌 관계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시행을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표 3-28>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 운영

| 구분 | 조사대상 | 일자리마련 프로그램 | 백분율(%) |
|----|------|------------|--------|
| 시립 | 22   | 10         | 45.5   |
| 구립 | 11   | 8          | 72.7   |
| 전체 | 33   | 18         | 54.5   |

### 3. 시민참여와 협력 연계망

#### 1) 시민참여 형태와 자원봉사 운영

- 공공도서관의 시민참여 형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처럼 도서관 운영에 시민이 직접 기여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도서관 운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단순한 의견 개진의 소극적 형태에서 실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관여가 가능한 운영위원회의 참여로 나타날 수 있다.

<표 3-29> 시민참여의 형태

| 구분 | 우편엽서 | 인터넷홈페이지 | 이용자들과의 정기적 모임 | 운영위원회 |
|----|------|---------|---------------|-------|
| 시립 | 4    | 22      | 5             | 22    |
| 구립 | 17   | 11      | 11            | 11    |
| 합계 | 21   | 33      | 16            | 33    |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자원봉사자의 현황은 1개관 당 연간 506명이 참여한 것으로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별 자원봉사는 중고등학생 연간465명, 성인 연간 41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립과 구립의 자원봉사자 수를 비교해보면, 시립공공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인력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0> 자원봉사자 인력 현황

| 구분 | 성인 자원봉사자 |         | 학생 자원봉사자 |         | 전체     |         |
|----|----------|---------|----------|---------|--------|---------|
|    | 연 인원     | 1개관 당 수 | 연 인원     | 1개관 당 수 | 연 인원   | 1개관 당 수 |
| 시립 | 446명     | 20명     | 13,023명  | 592명    | 13,469 | 612명    |
| 구립 | 908명     | 83명     | 2,308명   | 210명    | 3,216  | 292명    |
| 합계 | 1,354명   | 41명     | 15,331명  | 465명    | 16,685 | 506명    |

- 자원봉사자 인력을 활용하는 29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27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원봉사자 교육내용은 간단한 안내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시사항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자원봉사자활동이 주로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의 자원봉사 평가수단으로 형식화되어버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청소 이외에 다른 일을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3-31> 자원봉사자 활동

| 구분 | 독서지도 | 사무보조 | 열람실관리 | 서가정리 | 청소 | 기타 |
|----|------|------|-------|------|----|----|
| 시립 | 3    | 12   | 2     | 20   | 7  | 6  |
| 구립 | 3    | 6    | 7     | 9    | 5  | 0  |
| 전체 | 6    | 18   | 9     | 29   | 12 | 6  |

#### ○ 도서관 운영의 소극적 시민참여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시민참여 형태는 소극적이다. 모든 도서관들이 홈페이지나 우편엽서 등 이용자들의 의견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결정에 시민참여는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일부 인사가 운영위원회의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참여라기보다는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1년에 1~2차례 실시되는 형식

적 모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의 역할은 도서관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에는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 협력연계망

- 공공도서관 협력 연계망은 중요성이 강조되고, 확대되어가는 추세다. 그러나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협력수준은 단순정보 및 업무협의를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간 자료교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서울시 공공도서관끼리 상호대차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이 없으며, 상호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의 문제 등 장애요소들이 있다. 일부 중앙구립정보도서관과 같은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 교환이 아닌 웹상을 통해 자료복사를 신청하고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상호대차 자료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 서울지역 22개 시립공공도서관은 상호 정보교환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으나, 구립공공도서관은 운영주체 등 조직의 차이로 인해 이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표 3-32> 도서관 협력관계

| 구분 | 단순정보교환 | 자료교환 | 상호대차 | 업무협의 |
|----|--------|------|------|------|
| 시립 | 22     | 1    | 0    | 22   |
| 구립 | 7      | 1    | 0    | 8    |
| 합계 | 29     | 2    | 0    | 30   |

### ○ 이원화된 구조와 연계운영의 한계

시립과 구립의 이원화된 서울시 공공도서관 체계에서 앞으로 구립공공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시스템의 통합 문제가 제기된다. 구립공공도서관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원화된 운영체제로 인한 한계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 3) 기타 협력관계

#### ○ 문고 지원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에서 25개관에서 문고에 대한 지원과 이동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시간상, 거리상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관내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행하며, 1회 5권씩 2주일 동안 대출한다.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지역에 있는 문고의 자료까지 검색이 가능한 사례는 많지 않다. 성북정보도서관과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정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을문고의 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통합적인 도서자료의 관리와 시민편의의 향상을 위해 문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표 3-33> 문고 지원

| 구분 | 조사대상 | 문고지원 | 백분율(%) |
|----|------|------|--------|
| 시립 | 22   | 18   | 81.8   |
| 구립 | 11   | 7    | 63.6   |
| 합계 | 33   | 25   | 75.8   |

#### ○ 학교도서관 지원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에서 16개관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마다 도서관 활용수업이 확대되고, 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이 교육의 보조적 기능에서 실질적인 교수·학습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직접 학교도서관을 찾아가 자료정리, 리모델링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은평구립도서관은 학부형들에게 사서교육을 통한 학교도서관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광진정보도서관은 학교도서관에 권장도서목록을 제공한다.

<표 3-34> 학교도서관 지원 현황

| 구분 | 조사대상 | 학교도서관지원 | 백분율(%) |
|----|------|---------|--------|
| 시립 | 22   | 12      | 54.5   |
| 구립 | 11   | 4       | 36.4   |
| 합계 | 33   | 16      | 48.5   |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일부 시립 공공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지원과를 설치하고 있다. 2004년부터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성북정보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한 전담 사서를 배치하고 있다.

<표 3-35> 학교도서관 지원 내용

| 구분 | 도서관  | 지원조직                    | 지원내용   |
|----|--|-------------------------|--|
| 시립 | 정독도서관<br>남산도서관<br>강성도서관<br>양천도서관<br>동대문도서관 | 학교도서관<br>지원과 설치         | 수서·정리업무 지원<br>자료DB구축 및 DB변환<br>진급처리 지원(학년 초~3월)<br>장서점검 지원(방학중: 여름, 겨울)<br>담당교사, 도서부원, 자원봉사자 교육<br>선정도서목록 작성·배포<br>학교도서관활성화 지원대상 학교 자문 운영지원:<br>시설설치, 리모델링, 디지털자료실 |
| 구립 | 성북정보도서관                                    | 학교도서관<br>지원 담당<br>사서 배치 | 성북구내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언<br>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br>사서들이 선정한 수서 목록 정기적인 제공<br>학교도서관 운영 또는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br>학교도서관 운영 참여자의 커뮤니티 형성  |

#### ○ 관외 대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회원카드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공공도서관에서의 도서대출도 할 수 있다. 서울시 시립공공도서관 회원은 22개 시립공공도서관 어디에서든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데, 구립공공도서관과의 자료대출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도 시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해결해야할 도서관 협력사항이다.

<표 3-36> 구립공공도서관의 회원자격 및 관외대출 조건

| 구 분             | 회원자격   | 대출한도                                    | 대출연장   |
|-----------------|--|---|--------|
| 은평구립도서관         | 회원자격 제한없음  | 3권 이내 14일                               |        |
| 금천구립정보도서관       | 서울시민   | 3권 이내 14일                               | 1회 7일  |
| 성동문화정보센터        | 서울시민   | 3권 이내 14일                               | 1회 10일 |
| 관악문화관도서관        | 서울시민   | 3권 이내 7일                                | 1회 7일  |
| 도봉문화정보센터        | 서울시민, 도봉구내 학교 및 직장을 가진<br>인접지역 거주자                                     | 3권 이내 14일                               | 1회 7일  |
|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중랑구민, 노원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br>구민, 중랑구내 직장인                               | 3권 이내 14일                               | 1회 7일  |
| 광진정보도서관         | 광진구민   | 3권 이내 7일                                | 1회 7일  |
| 강북문화정보센터        | 정회원: 강북구민, 강북구내 학교의 학생,<br>강북구내 사업주 및 직장인<br>준회원: 인접지역(노원, 성북, 도봉구) 주민 | 우수회원 5권<br>정회원 3권<br>준회원 2권<br>각각 14일   | 1회 7일  |
| 강북청소년문화<br>정보센터 | "  | 정회원 3권이내<br>준회원 2권이내<br>각각 14일          |        |
| 성북정보도서관         | 정회원 : 성북구 거주<br>준회원 : 서울시 거주<br>성북구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재학)<br>하고 있는 경우     | 정회원:3책14일<br>준회원:2책14일                  | 1회 7일  |
| 노원어린이도서관        | 노원구민으로 유아나<br>초등학생이 있는 세대  | 1회 1세대:<br>유아·아동도서<br>3권, 일반도서<br>1권 이내 | 1회 7일  |

#### 4. 도서관 운영에 대한 시민 의견

앞서 제시한 이용자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식을 보고자 하였다. 시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 각 부문별 사항에 대한 중요성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부문별 사항은 도서 및 자료, 교양·문화프로그램, 공간 및 시설 등의 부문으로 나뉘었고, 각 분야의 개별 시책에 대해 시민들이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시민들은 “최신 도서와 다양한 문헌자료들이 확보”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 4.31로 가장 높았으며, 열람실과 도서관 주변이 정숙한 환경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학습 및 열람공간의 확대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자료열람과 학습공간이라는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도서관의 정숙한 환경 유지에 대한 중요성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표 3-37> 시민의 도서관 시책에 대한 중요도 평가

| 영역      | 조사문항               | 응답자 | 중요도평균 | 표준편차  |
|---------|--------------------|-----|-------|-------|
| 도서 및 자료 | 최신도서와 문헌자료확보       | 202 | 4.31  | 0.681 |
|         | 자료대출기간, 대출권수 확대    | 201 | 3.58  | 0.863 |
|         | 타도서관의 자료이용         | 200 | 3.71  | 0.860 |
|         | 다양한 전자책과 디지털자료의 확보 | 199 | 3.77  | 0.788 |
|         | 컴퓨터, 인터넷이용 환경 개선   | 199 | 3.82  | 0.783 |
| 문화프로그램  |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제공    | 199 | 3.89  | 0.855 |
|         |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문화정보 제공 | 200 | 3.66  | 0.943 |
| 공간 및 시설 | 도서관 이용시간연장         | 203 | 3.68  | 0.906 |
|         | 개인학습 및 열람공간 확대     | 203 | 3.92  | 0.795 |
|         | 디지털자료실 공간의 확대      | 197 | 3.60  | 0.793 |
|         | 어린이와 가족공간 제공       | 201 | 3.66  | 0.880 |
|         | 이용자를 위한 탁아시설 설치    | 202 | 3.40  | 0.915 |
|         |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시설 설치  | 199 | 3.75  | 0.801 |
|         | 편의시설, 주차공간의 개선     | 202 | 3.81  | 0.825 |
|         | 열람실과 주변환경의 정숙 유지   | 202 | 4.18  | 0.790 |
|         | 도서관직원의 서비스 개선      | 201 | 3.66  | 0.790 |

주: 5점 척도(1: 매우중요하지않다,,,5: 매우중요하다)

7) 이러한 결과는 2002년 서울시가 수행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각 사항에 있어 서울시가 조사한 내용이 서울의 25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2320명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에서 나타나는 우수한 5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220명의 이용자로 하였기에 표본 구성과 조사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점은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이 강조하는 분야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태도와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 제 IV 장 공공도서관 사례

### 제 1 절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례

#### 1. 은평구립도서관

- 2001년 10월 15일에 개관한 은평구립도서관은 인구 47만 명의 은평구에 유일한 구립공공도서관이다. 은평구립도서관은 서울시와 문화관광부의 평가에서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도서관이다. 지역의 단위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의 공간적 구성과 운영 그리고 시민의 이용태도의 현장을 보고자 하였다.
- 은평구립도서관 건물은 도서관을 상징하는 외관과 특징적인 모습으로 은평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은평구립도서관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표 4-1> 은평구립도서관의 연혁

| 날 짜          | 내 용                   |
|--------------|-----------------------|
| 2001. 10. 15 | 은평구립도서관 개관            |
| 2002. 03. 10 | 순회문고사업 시행             |
| 2003. 03. 20 | KOLASⅡ 시스템 도입         |
| 2003. 05. 12 | RFID 시스템 종합자료실 서비스 실시 |
| 2003. 07. 23 | 효마당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실시    |



<그림 4-1> 은평구립도서관 전경



<그림 4-2> 은평구립도서관 가는 길

○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

은평구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요구에 침윤되어 있는 특성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신축 건립된 구립도서관들에서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반영되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학습공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학습공간의 요구는 도서관이 가지는 주요한 기능의 하나로 자료의 관리와 도서의 이용에 제한을 하게 할 수 있는 면을 지닌다. 이에 대한 모색으로 은평구립도서관은 심야에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다른 구립도서관에 비해 두드러진 것으로 문화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인구 특성에 따라 노인층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설과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다. 어린이에 대한 배려도 두드러지고 있다. 어린이에게 도서관은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공간으로서만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또 하나의 놀이 공간이며, 학습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공간적 배려로 이용자층의 다양한 이용 특성과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과 아울러 두드러진 것은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도서 관리와 시민이용에 혁신적인 개선을 추구하였다. 정보화 기술의 응용은 도서관계에서 필요성을 많이 제기하고 있으나 그 성과나 효과가 불명확하고 기술이 안정된 기술이 아니라는 특성으로 도입이 주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은평구립도서관은 과감한 도입으로 혁신을 기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자원을 지역사회의 요구에 보다 부응할 수 있었다. 이동서비스의 지원, 복지시설과의 연계 등은 은평구립도서관의 두드러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은평구립도서관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야산에 신축하여, 일반적인 시민의 접근성은 좋은 편은 아니다. 은평구 전체 지역 주민이 수시로 방문할 곳에 위치하지 못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쉽게 찾아가기 어려웠다. 도서관 바로 주변의 주민에게는 풍족한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로 은평구 전체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 여유의 공공부지가 없어 이러한 위치에 설립한 것이 아쉬운 상황이다. 건물은 도서관 구성의 공간적 특징과 현대 건축의 실험적 사고를 구현한 것을 보여준다.

## 2. 강남구의 강남도서관

- 1982년에 개관한 강남도서관은 개포도서관과 함께 강남구에 위치한 시립공공도서관이다. 건물의 외관은 은평구립도서관처럼 특징 있는 건물이 아닌 허름한 건물이다. 교육청과 한 건물로 설계되어 건물의 일부를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강남도서관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강남구의 지역사회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4-2> 강남도서관의 연혁

| 날짜           | 내용                           |
|--------------|------------------------------|
| 1982. 03. 23 | 강남도서관 개관                     |
| 1983. 02. 23 | 어린이열람실 개관                    |
| 1987. 11. 28 | 자료열람실 개관                     |
| 1988. 05. 01 | 자동차문고 개설                     |
| 1997. 07. 01 | 전자자료실 개설                     |
| 2002. 03. 06 | 디지털자료실 확장 개설                 |
| 2003. 03. 28 | 공공도서관 표준 자료관리시스템(KOLAS II)사용 |



<그림 4-3> 강남도서관 전경



<그림 4-4> 강남도서관 가는 길

-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

서울 시내 시립도서관 운영에 있어 보이는 특성 중의 하나는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한 제도적인 관성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적 기능은 중고등학교를 전제하여, 중고등학생들의 교육적인 공간을 구비하는 것이다. 학교체제 내에서 자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결여된 상황과 주입식, 입시, 참고서 중심의 교육 현실에

서 학생 등이 필요한 공간을 지역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시립도서관에서 열람실의 운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고 상대적으로 자료구비와 대출에는 충분한 노력이 보이지 못하였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여건이 변화되었어도, 이러한 제도적 관성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강남구 시립도서관은 시초에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주변의 학교들 옆에 교육청 건물과 함께 사용하면서 도서관을 시작하였다. 강남구 도서관의 현재의 모습은 이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이용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의 학습공간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료실의 확보와 대출 서비스의 강화 및 지역 사회의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들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개선 노력의 결과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변화에 따라 오랫동안 지역의 친근한 문화시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수준은 지역사회의 시민 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의 수준이 도서관 운영에 반영되고, 시민과의 상호작용에서 도서관은 시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

강남구의 경우, 도서관 시설의 구비에서 보면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른 어느 구에 비해 풍부한 자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강남도서관은 강남구 지역 전체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보다는 보다 작은 지역 범위에서 제한된 시설로 도서관서비스를 집중할 수 있었다. 강남구내에서도 도서관 자원은 연계되어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강남구에는 도서관 확충과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작은 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의 개방화와 서울시가 추구하는 공공분화시설의 복합화, 강남구의 전자도서관, 문고와의 연계 등의 다양한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체제에서도 아직 구립과 시립의 공공도서관의 연계체제는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 3. 은평구립도서관과 강남도서관의 비교

<표 4-3> 은평구립도서관과 강남도서관의 비교

|    | 은평구립도서관  | 강남도서관   |
|----|--|---|
| 장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열람실은 가족단위 이용자들로 평일 휴일관계 없이 붐빔</li> <li>- 도서대출·반납자동화시스템, Mobile Library System 등 최신시설 확보, 운영</li> </ul> </li> <li>2. 도서관으로서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평구의 상징적 건축물 가운데 하나</li> </ul> </li> <li>3. 은평구의 지역정보제공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마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li> <li>- 홈페이지를 통한 ‘호’관련 정보제공</li> <li>- 노년층인구비중이 높은 지역특성살림</li> </ul> </li> <li>4. 아간이용자를 위한 심야열람실 운영</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적으로 풍부한 도서관 시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포도서관과 강남구립도서관 등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은 도서관 시설들이 입지함</li> <li>- 강남구민에게 도서관 선택의 폭이 넓고, 특정 도서관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킴</li> </ul> </li> <li>2. 지역주민의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가와 학교밀집지역(초중등학교)에 위치</li> </ul> </li> <li>3. 이용자 신청도서에 대한 구비가 빠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주일 이내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신간을 비치함</li> </ul> </li> <li>4. 도서관의 20년이 넘는 역사는 강남구민에게 지역사회의 중요한 시설로 인식됨.</li> </ol>                |
| 단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서관 입지의 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관련 주요 민원 중 하나</li> <li>- 노약자 및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움</li> <li>- 주변 환경상 셔틀버스 운행이 쉽지 않음</li> </ul> </li> <li>2. 지역적으로 빈약한 도서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47만 은평구의 유일한 공공도서관</li> </ul> </li> <li>3. 다른 도서관들과의 연계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평구의 동문고와 연계망 없음</li> <li>- 1개 구립도서관으로 은평구민의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려움</li> </ul> </li> <li>4. 자원봉사인력 활용의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 미약</li> </ul> </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의 공간적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열람실을 둘 공간 없음</li> <li>- 자동차 이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주차공간 부족</li> <li>- 주말의 가족단위 이용자를 위한 공간 부족, 특히 어린이열람실에 유아들을 위한 열람 공간 부족</li> </ul> </li> <li>2. 강남구 구립도서관과의 연계성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과 구립의 이분화된 운영체계</li> <li>- 서로 다른 도서검색시스템 운영, 향후 시스템 통합에 어려움이 예상됨</li> </ul> </li> <li>3. 자원봉사자 활용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주민자치시설들과의 연계성 미약</li> <li>-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 미약</li> </ul> </li> </ol> |
| 기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복지서비스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평구의 대표, 유일 공공도서관으로서 그 기능을 다각화할 필요 있음.</li> <li>- 시민복지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특성상 복지기능이 강화되어 이용자층을 다양하고 확대시킬 필요 있음.</li> </ul> </li> <li>2. 은평구립도서관에 의한 문고 통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동사무소 문고의 목록을 통합관리하여,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도서검색환경 제공</li> <li>- 도서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li> <li>- 은평구민의 독서환경에 기여</li> <li>- 노약자,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가능</li> </ul> </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남구립도서관과의 협력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립과 구립 구분없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강남구공공도서관시스템 구축</li> <li>- 이용자들의 지역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li> </ul> </li> <li>2. 지역정보 및 독서정보 제공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남구의 우수한 정보화기반을 이용하여 지역정보, 독서정보, 교육관련소식 등을 제공</li> <li>- 강남도서관 이용자층의 저변 확대에 기여</li> <li>- 강남도서관은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안내하는 역할의 강화를 통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지역사회 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정립</li> </ul> </li> </ol>  |

## 제 2 절 해외 공공도서관 사례

### 1.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 대도시의 공공도서관의 대표적인 예로 뉴욕의 공공도서관을 보고자 한다. 민간(재단)과 시정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뉴욕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전반적인 특징을 볼 수 있으며, 특히 Manhattan에 위치한 전문도서관과 지역분관도서관 체계에서 나타나는 연구기능과 자료대출기능의 분화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뉴욕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뉴욕 공공도서관 지역복지서비스(Community Outreach Service)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문화·복지시설로의 기능 확대에서 중요하다.



<그림 4-5> New York Public Library

- 세계의 도시, 뉴욕시에 자리 잡은 뉴욕공공도서관은 민간에 의해서 1895년 5월 23일 설립되었다. 1901년 1월에 뉴욕무료순회도서관과 뉴욕공공도서관이 협력하게 되었고, 후에 Andrew Carnegie가 기부한 자금과 뉴욕시에서 제공한 부지와 도서관 운영 자금을 통해서 65개의 분관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은 브롱크스, 맨해튼, 스탠포드아일랜드에 있는 85개의 공공도서관으로 구성된 공공도서관 시스템으로 발전되었다. 뉴욕공공도서관 시스템(New York Public Library System)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맨해튼에는 전문화된 주제를 다루는 4개의 연구도서관(Research Library)을 포함한 5

개의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그리고 뉴욕시 곳곳에 산재한 지역분관도서관(Neighborhood Branch Library)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자치구인 브롱크스와 스테튼아일랜드는 각각 구중앙도서관(Borough Center Library)과 지역분관도서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뉴욕공공도서관시스템에 포함된 85개 도서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표 4-4> 뉴욕공공도서관의 분포

| 구 분     | central library | borough center | neighornood branch library | 비고              |
|---------|-----------------|----------------|----------------------------|-----------------|
| 브롱크스    | -               | 1              | 33                         |                 |
| 맨해튼     | 5               | -              | 34                         | 연구도서관<br>4개관 포함 |
| 스테튼아일랜드 | -               | 1              | 11                         |                 |
| 전 체     | 5               | 2              | 78                         |                 |



<그림 4-6> Mid-Manhattan Library

- 우리에게 뉴욕공공도서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연구도서관인 인문사회과학도서관(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ibrary)과 지역도서관인 Mid-Manhattan Library는 길을 사이로 서로 마주하고 있어, 시민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연구를 목적으로 전문서적이나 자료가 필요한 이용자는 인문사회과학도서관으로, 일반 대출을 목적으로 한 이용자는 Mid-Manhattan Library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도서관과 대출도서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공공도서관 체계 속에 전문도서관과 대출 도서관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런던공공도서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비록 그 규모나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심에 전문도서관이 위치하고 주위에 대출도서관이 입지하는 모습은 뉴욕과 런던에서 나타나는 도서관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 이와 함께 뉴욕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지역복지서비스 (Community Outreach Services)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뉴욕공공도서관이 정보, 지식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도서관에서 벗어나, 대시민 복지서비스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다.
- 지역복지서비스(Community Outreach Services)는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뉴욕공공도서관은 지역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읽기쓰기센터(Centers for Reading & Writing)를 주요 도서관에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교양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자에 의한 소그룹 지도, 컴퓨터지원 교육, 학생들의 작문 출간, 평생학습, 책을 통한 가족화합, 성인 새로운 독자를 위한 도서지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뉴욕공공도서관은 문화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Manhattan에 위치한 4개의 연구도서관은 전시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지역분관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열람실에도 소규모의 전시회들이 열린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 및 독서주간에 행해지는 작가와의 만남과 같은 강연회나 시상식들이 뉴욕공공도서관에서도 실시된다. 2003년에 분관도서관에서 실시된 26,000개의 시민프로그램에 수백명의 유명 작가와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 학생들의 학습지원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다. 실시간 과제 도우미(Live Homework Help) 서비스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학, 과학, 사회과학, 영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강사의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13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오후 2시부터 도서관 폐관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20분한도 내에서 이 온라인 강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 런던공공도서관(London Libraries)

- 런던광역시는 런던시(City of London)를 포함한 33개 기초자치단체에 395개의 공공도서관이 분포한다. 런던공공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과 분관도서관(Branches)으로 구성되지만, 각 구의 특성에 따라 중앙도서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Barking and Dagenham Borough의 공공도서관 체계는 중앙도서관과 10개의 분관도서관으로 구성되지만, 런던시(City of London)는 중앙도서관 없이 전문도서관과 대출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 4-5> 런던공공도서관의 구(borough)별 분포

| 구(borough)            | 도서관수 | 중앙도서관 | 구(borough)           | 도서관수 | 중앙도서관 |
|-----------------------|------|-------|----------------------|------|-------|
| Barking & Dagenham    | 11   | 1     | Hounslow             | 10   |       |
| Barnet                | 17   |       | Islington            | 11   | 1     |
| Bexley                | 13   | 1     | Kensington & Chelsea | 8    | 1     |
| Brent                 | 12   |       | Kingston upon Thames | 8    |       |
| Bromley               | 15   | 1     | Lambeth              | 10   | 1     |
| Camden                | 15   | 1     | Lewisham             | 15   |       |
| City of London        | 8    |       | Merton               | 8    |       |
| Croydon               | 14   | 1     | Newham               | 12   |       |
| Ealing                | 12   | 1     | Redbridge            | 9    | 1     |
| Enfield               | 15   | 1     | Richmond upon Thames | 14   |       |
| Greenwich             | 14   |       | Southwark            | 13   |       |
| Hackney               | 8    | 1     | Sutton               | 10   | 1     |
| Hammersmith & Fullham | 7    |       | Tower Hamlets        | 15   |       |
| Haringey              | 10   | 1     | Waltham Forest       | 14   | 1     |
| Harrow                | 11   |       | Wandsworth           | 14   |       |
| Havering              | 10   | 1     | Westminster          | 14   |       |
| Hillingdon            | 18   | 1     | 전체                   | 395  | 17    |

- 뉴욕공공도서관시스템에서 나타났듯이 연구도서관(Research Library)과 대출도서관이 변화가에 입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는 것은 런던공공도서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런던광역시의 자치단체 가운데 하나인 런던시(City of London)는 전체 8개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주로 도서자료와 관련된 도서관은 5개관이 있다.

<표 4-6> 런던시공공도서관 체계

| 구분                            | 도서관명                  | 기능 및 특징   |
|-------------------------------|-----------------------|---|
| 전문도서관<br>reference<br>library | City Business Library | 기업과 경영의 정보 제공<br>런던시,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기업·경영관련 도서, 정기간행물, 신문, 보고서 등 최신자료 수집<br>자료는 대출하지 않음                                 |
|                               | Guildhall Library     | 영국 전역의 county, town, village 역사에 대한 자료 특히, 런던시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서관<br>Print Room은 역사적 가치 있는 런던의 지도와 그림의 원본들이 전시되고 있음 |
| 대출도서관<br>lending<br>library   | Barbican              | 런던시의 가장 큰 대출도서관, 일반도서자료와 예술, 음악 관련 자료들도 상당함<br>Barbican Children's Library 매달 1번씩 토요일에 어린이를 위한 행사개최                           |
|                               | Camomile Street       | 가장 최근에 생긴 런던시의 공공도서관<br>소설, 비소설, 음악CD 등을 포함 약 50,000점 보유  |
|                               | Shoe Lane             | 1982년 개관 42,000권 2,000개 비디오, 4,500개 음악CD 보유   |

자료: www.cityoflondon.gov.uk(런던시 홈페이지)

- 런던공공도서관은 공통적으로 사회도서관서비스(Community Library Services)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도서대출서비스인 Home Library Service(HLS, Home Delivery Service라고도 함)가 있다.
-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과제도움(Homework Support)<sup>8)</sup> 서비스가 있는데, 영국의 대도시 지역구에 있는 도서관의 61%가 과제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과제자료실은 컴퓨터 한 두 대와 15~20장 정도의 CD-ROM, 참고도서로 꾸며진다. 또한 북스타트(Bookstart)<sup>9)</sup>는 이 프로그램을

8) 김영석, 영국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셰필드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 제58권 제4호(2003년 겨울호), pp.18-29.

9) 북스타트 프로그램은 몇몇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도 하고 있다.

통해서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책을 가까이하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유아들에게 무료로 책을 선물하는 사업이다.

- ‘학교에 대한 도서관서비스(Schools Library Services(SLS))’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은 학교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과 직원을 책정하고 있다.

### 3. 해외 사례의 함의

- 뉴욕이나 런던의 도서관은 근대도서관체제의 성립에 따라 이루어진 대표적인 도서관의 면모를 보여준다. 근대 시민 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민주주의 토양의 육성을 위한 도서관의 기능을 확립하였고, 이러한 체제 성립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이 수반되었다.
- 도서관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Borough를 중심으로 하는 런던의 도서관 체제가, 현재 서울의 자치구 중심의 운영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과 뉴욕의 도서관체제에서 뚜렷한 공통점은 공공도서관이 전체 지역의 대표로써 연구 기능 지원을 수반하고 있어 도시의 지적 자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프로그램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서 UNESCO가 제시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문화시설로써 역할을 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학습지원, 대출의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지역의 정보 서비스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화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만, 책을 중심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향도 발견된다.
-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공공도서관은 자원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런던의 경우는 세금의 형태로 재원을 확보하고, 뉴욕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기부금 및 정부에 대한 시민의 압력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공공도서관이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뚜렷하고,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공공도서관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에서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민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의 책임과 사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선진 도서관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 해외도시 도서관 사례는 쉽게 모방하기는 어렵다. 도서관의 성장과 발전이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여러 사람들의 개선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서 공공도서관은 개선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없으면 결코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된다. 개선 방향을 위한 사례로 뉴욕과 런던의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체제는 서울의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에서 중요한 사례이다.



## 제 V 장 서울시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

### ○ 문화도시와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은 지역 문화 활동 핵심이며 문화 도시의 상징성을 고양하는 도시의 문화 공간이며 문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 ○ 다양한 사회적 요구의 수용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과 보관, 관리의 전통적인 기능에서 정보화와 평생학습 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활동과 평생 학습 기능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변화되고 있다. 공공 문화 시설로서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 ○ 시민중심 서비스 향상

공공도서관의 개선 방향은 시민 중심의 서비스 수준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민중심성이 중요한데 공공도서관은 사회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 문화에 대한 계몽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동시에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대해 시민 참여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

### ○ 서울시의 도서관정책 필요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일관된 서울시의 도서관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과 도시 문화 정책의 전망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연계망(Network)을 중심으로 한 공공도서관 운영체제를 제도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 1 절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환경 개선

### 1.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확충

-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시민의 생활속에 숨쉬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양적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40개의 공공도서관으로 시민들의 지식·문화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 공공도서관의 건축에서는 상징성이 중요하다. 상징성의 시각에서 볼 때 리모델링으로 미관이 주위환경과 어울리지 않거나, 도서관이라는 이미지 보다 관공서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면 지역의 주민에 있어 친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자칫 공공도서관 확충이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시설증설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보다는 지역 환경과의 조화라는 세심함을 고려하여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 공공시설의 복합화와 함께 도서관설립에 있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에서 도서관의 설립에 재정적 지원 또는 부지나 시설의 기부가 장려되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도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 문을 연 시애틀(Seattle)의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은 기금을 모아 건립되었다.



<그림 5-1> Seattle Central Library의 전경과 Microsoft Auditorium  
자료: 시애틀공공도서관홈페이지([www.spl.org](http://www.spl.org))

## 2. 열람실 운영의 개선사업 실시

-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태는 일반열람석은 물론 자료열람석에서 고시나 취업공부와 같은 개인적인 학습공간의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열람실에 국한된 도서관 이용은 도서관의 역할이 위축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반열람실과 자료열람실의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개인학습공간이 필요해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 책을 읽고 싶어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 집이나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활동을 위해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를 위해 도서관은 열린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건축적인 요소와 개별도서관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지만, 일반열람실과 자료열람실을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의 과천과학정보도서관이나 일본의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은 일반열람실과 자료열람실의 구분이 없다. 학습공간과 독서공간을 함께 뒀으로써 도서관 이용자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비록 이용자가 개인학습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지만, 도서관에 소장된 책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5-2>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의 열람실

- 공공도서관의 운영은 시민의 생활 양태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행태에 맞는 계절별, 시간대별 탄력적인 열람실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예로써 은평구립도서관은 일반열람실 외에 심야열람실(동절기 22:00~07:00, 하절기(3월~10월) 22:00~06:00)운영하고 있다.

## 제 2 절 지역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강화

### 1. 어르신의 이용 활성화

- 어르신들이 ‘도서관 문턱넘기’는 쉽지 않다.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빈약하고, 10, 20대가 자리를 가득 메운 공공도서관에 발을 내딛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sup>10)</sup> 문화프로그램도 30, 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노년층을 끌어들이기는 어렵다. 도서관은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공간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든 부분이다.
- 도서관 이용자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어 장년층과 노년층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어르신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도서관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도서관 수요자를 발굴하며, 도서관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던 수요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 다음 그림에서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의 이용자의 저변은 청소년 위주의 우리나라 도서관 이용자 저변 보다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10)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조사하면서 만난 장년층 이상 이용자들은 도서관을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곳에 우리 같은 사람이 와서...” 내지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곳에서...”와 같은 말을 한다.



<그림 5-3>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의 남녀노소 이용자

## 2. 장애인 열람환경 향상을 위한 서비스

-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 공간을 통한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 공공도서관도 장애인을 위한 열람실을 마련해놓고 있다. 장애인열람실의 경우,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1층에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지만, 다른 이용자와는 격리된 느낌을 준다.
- 예를 들면,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열람코너를 설치하였다. 특히 일반열람실과 분리된 곳이 아니라 일반이용자들도 관심을 갖고 장애인을 위한 자료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도서 열람공간과 함께하고 있다.



<그림 5-4>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 장애인열람코너의 점자도서와 녹음도서

- 서울시 공공도서관도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서관의 접근과 자료의 이용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체 도서관으로 분산된 장애인 열람실 기능을 장애인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도서관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비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최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5-5>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의 장애인 이용환경

### 3. 어린이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 어린이는 가장 중요한 도서관 이용자이다. 어린이는 공공도서관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한 이용자이다. 어린이는 현재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향에서 시민에 대한 계몽 역할을 하는 도서관의 위상에서 볼 때 가장 적절한 층이며, 어린이의 공공도서관 이용은 가족의 관심과 이용을 유인하는 이용자층 다변화를 수반하는 수요 확대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어렸을 때의 책 읽는 습관과 도서관 이용이 개인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향후 이용에 따른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 이러한 면에서 공공도서관들은 어린이열람실을 갖추거나 어린이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최근에 개관한 노원어린이도서관은 구립공공도서관 중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도서자료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부모와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으

며, 특히 주말에는 수많은 이용자들로 붐비고 있다.

- 샌프란시스코 중앙도서관(San Francisco Main Public Library)의 어린이열람실(Fisher Children's Center)과 노원어린이도서관



<그림 5-6> San Francisco Main Public Library의 어린이열람실



<그림 5-7> 노원어린이도서관 전경

#### 4. 교양·문화프로그램의 다각화

- 도서관은 문화·교양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양·문화행사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이것은 도서관 저변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도서관별로 독서의 달이나 도서관주간 행사를 해마다 실시하



고 있지만, 이 행사가 시민의 관심과 함께 도서관 저변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개별 도서관이 차별화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시행 첫 해를 맞는 ‘책 읽는 서울’의 도서관별 프로그램도 아직까지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크게 차별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지만, 개별 도서관이 갖는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문화이벤트가 될 수 있었다. ‘책 읽는 서울’은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 공공도서관 31개관이 함께 마련한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민들에게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알리고, 도서관과 친숙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전철역의 게시판이나 관공서의 안내판에 ‘책 읽는 서울’ 프로그램을 알리는 포스터들은 시민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개별도서관이 진행할 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한 ‘책 읽는 서울’ 프로그램은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하다.

○ 2006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도서관대회’는 시민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세계도서관대회를 홍보하여, 문화이벤트를 통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은 도서관 저변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이밖에도 도서관끼리 연합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문화와 관련된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는 중요하다.



### 제 3 절 서울시 공공도서관 체계(Seoul Public Library System)

#### 1. 연계망 운영체제 지향: 시립과 구립의 단계적 통합 운영

- 시립과 구립으로 이원화된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도록 한다. 현재 서울시에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의 관계는 교육청 산하의 시립 도서관은 정독도서관을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 하여 연계되어 있다고 가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위계 구조에서 단위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구립도서관은 개별 구청의 관할하여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연계망의 구성과 활용은 도서관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다.
- 시립과 구립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가 다르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함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기회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관의 연계망운영은 법적 제도적 규정사항이면서, 동시에 공공도서관 발전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연계망운영은 조직과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도서관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로 공공도서관은 서울 전역의 문화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들은 중복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서관자원과 프로그램들에 대해 시민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 도서관과 도서관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도서관 기능의 외연 확장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연계망이 있을 수 있다. 연계망은 도서관 정책에서 시작하여, 도서관들간의 위계적 연계, 그리고 연계의 내용에 따라 정보,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 시설과의 연계망 등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 연계망은 이러한 모든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망의 구축은 도서관 관계자의 노력과 제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5-1> 도서관 연계망 내용

| 도서관 연계망         | 내 용  |
|-----------------|--|
| 도서관의 위계와 네트워크체계 | 국립, 공공(지역 대표, 지방대표/ 시립, 도립, 구립, 군립, 사립), 대학, 학교도서관, 문고               |
| 정보 네트워크         | 정보, 컴퓨터 및 정보 기술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운영                                  |
| 도서자원 네트워크       | 도서, 정보 자원의 공동구입, 공동보존, 공동활용  |
| 프로그램 네트워크       | 평생교육, 문화 프로그램, 예술프로그램 등  |
| 이용서비스 네트워크      | 상호대차, 참고 지원, 교육 지원, 대출 반납, 회원 관리                                     |
| 운영 네트워크         | 상호 협력, 인사 교류, 자원봉사 활용  |
| 문화시설 네트워크       | 청소년회관, 문화관, 구민회관, 사회복지관, 기타 문화 복지시설 등                                |
| 정책 네트워크         | 행정/지방자치, 교육, 문화정책  |
| 이해관계자 참여 네트워크   | 사서계와 출판계, 교육계, 문화계, 여성계, 복지계(문화복지, 장애인 복지, 교육복지), 시민, 지역주민, 도서관운동 단체 |

- 웹(web)공간을 통한 시립과 구립도서관의 통합은 상호대차 서비스와 전자도서의 열람, 도서관 교양·문화행사의 안내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현재 경기 도서관사이버중앙도서관([www.golibrary.go.kr](http://www.golibrary.go.kr))은 홈페이지를 통한 검색과 신청을 통해서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의 모든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공동목록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상호대차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서울시 경우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끼리 링크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구성되어있으며,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은 각기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구립공공도서관과 시립공공도서관의 자료를 검색하려면 경기도는 클릭 한 번으로 경기도 내 도서관의 모든 도서자료를 검색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각각의 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 웹을 통한 시립과 구립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통합도 비용과 관리의 문제 등 각 공공도서관 간 조정과 타협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현재 이원화된 공공도서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향후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 업무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이원화된 공공도서관 체계를 떠맡고 도서관 정책을 진행시켜야 하는 서울시에 있어 웹을 통한 시립과 구립 체계의 통합은 서비스의 연계와 자원의 활용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특히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로 분리된 상황에서 서울시는 구립공공도서관의 지원관리를 담당하고, 교육청의 시립공공도서관과는 지속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향후 시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2. ‘서울시 중앙도서관’의 건립

- 서울시 연구의 전문도서관과 향후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중심도서관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을 설치한다. 뉴욕시와 런던시의 공공도서관 시스템에서 나타났듯이 한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림 5-8> 뉴욕시 변화가의  
공공도서관



<그림 5-9> 샌프란시스코의 시청과  
중앙도서관

- 연구도서관 기능이 중앙도서관에 하나의 기능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중앙도서관은 연구도서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의 역사, 문화, 환경, 건축 등 곳곳에 산재된 서울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보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소에서 나오는 각종 도서와 연구자료 중심으로 수집·정리하여 서울시에 관련된 서울시 연구의 전문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간다. 중앙도서관은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sup>11)</sup>



<그림 5-10>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의 지역자료서고와 개인연구실

### 3. ‘서울시 공공도서관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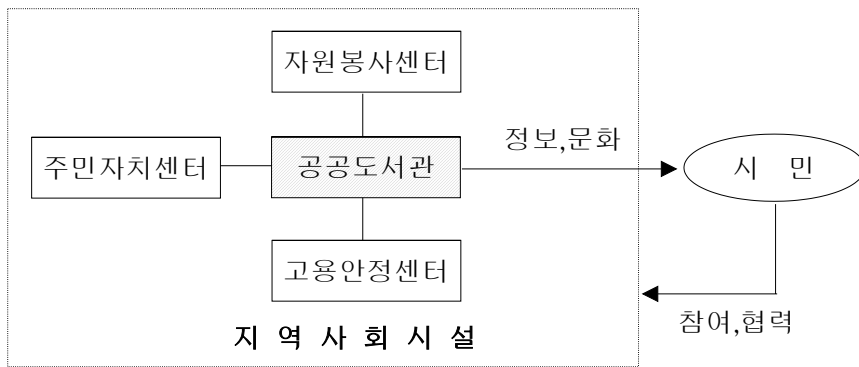
- 향후 도서관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는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서관 정책에 있어 종전보다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문화관광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시안에서는 ‘제5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시는 공공도서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 반영과 함께 시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시민이용의 보편성이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서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는 도서관계획 수립단계에서 시민의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1) 경기도는 앞의 정책 방향에서 보듯이 수원에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다.

- 공공도서관 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참여와 함께 지역의 다른 공공 문화시설과의 연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 지방자치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의식도 향상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원봉사인력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증가와 주민자치센터 등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 문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곧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모집과 적재적소의 배치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노하우가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다<sup>12)</sup>.
- 자원봉사센터 이외에도 시민관련 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공공도서관 이용자들 가운데 취업준비 및 자격증을 준비를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디지털자료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구직신청 및 일자리검색을 하는 이용자들도 있다. 이렇게 구직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용자들이 쉽게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도서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문화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과 연계에서는 지원과 기능적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청소년 학생들의 학습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면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시민 일반에게 공공 문화 공간 및 지식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지역의 시설과의 연계를 도서관 계획에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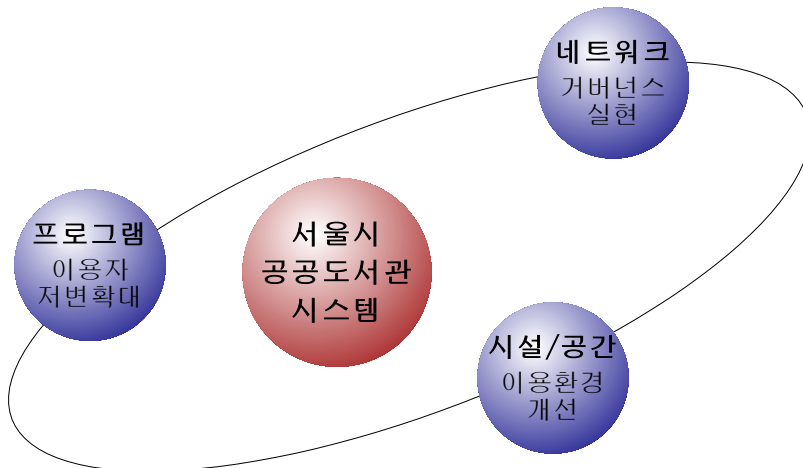
12) 공공도서관의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다. 중·고등학생 위주의 자원봉사는 청소년나 단순 작업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인력은 자신의 관심과 맞았을 때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자원봉사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서관에 대한 지역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운영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볼 필요는 없다. 지역의 자원봉사인력의 동원은 지역사회와 공공도서관이 끊임없이 교류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림 5-11> 공공도서관의 지역시설과의 연계

#### 4. 도서관 운영의 시민참여 거버넌스 실현

- 서울시 공공도서관 체계는 궁극적으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도서관 운영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확보하는 것이다. 앞서 도서관계획에 있어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자신들이 생활하는 지역의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시민 참여는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림 5-12> 서울시 공공도서관시스템

- 단순한 참여를 넘어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이용자 시민, 도서관전문가, 도서관정책담당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서관자료,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생산해내는 거버넌스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sup>13)</sup>
- 하지만 우선 이러한 도서관 운영의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성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도서관에 얹힌 재정, 인력의 문제 등을 시민과의 협력으로 풀어갈 수 있다.

## 5. 정보화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모델 모색

- 공공도서관의 정보화는 도서관의 미래 방향을 보여준다. 현재의 도서관은 정보화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보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일반 사회의 정보화 수준에 맞추어 도서관은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비추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필요한 것은 정보화를 이끄는 공공도서관의 혁신적인 모델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서울의 도서관 체계에 마지막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 남은 문제는 공공도서관의 공간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활동에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은 정보화 시대의 공공 공간으로서 정보와 정보활동의 중핵(Nexus)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보다 혁신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현재의 공공도서관이 정보화 흐름에 적응의 양상을 보인 것이라면 앞으로의 공공도서관은 정보화를 이끄는 시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13) 영유아·어린이 전문 도서관인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특히 도서관 운용에 민간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참가하도록 하고,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상시 대기해 아이들의 독서와 안전관리 등을 맡도록 하여, 자원봉사자들에 어린이에 관한 상식이나 책 읽어주는 요령 등에 대해 18시간 동안 교육받고 도서관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함.

- 정보화의 물결에서 도서관의 새로운 시도는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이다. 이것은 정보매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 축적을 강조한 미래 도서관의 모습이다. 이에 대해 공공도서관은 대응은 정보매체보다는 정보에 대한 접근에 있어 정보 네트워크의 활용과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는 현재의 공공도서관의 내부 구성은 재검토될 수 있다.
- 정보의 흐름에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서 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머무름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정보활동을 위한 영역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개인의 학습과 정보 생산 활동을 위한 개인적 영역, 공동의 교육과 학습의 영역, 공공 모임의 의사소통의 영역들로 공간적 구성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정보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정보의 저장 매체로써 책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한 공공도서관은 정보활동의 흐름과 머무름의 시민의 공공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새로운 공공도서관의 미래 모색에 시발점이다.
- 우리나라의 높은 네트워크 보급 수준이나 일반 시민의 정보활용 수준에서 볼 때 새로운 공공도서관의 모델에 대한 선진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공공도서관의 관심과 정책자들이 중지를 모아 미래의 공공도서관의 모델에 대해 새로운 모습을 제기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모습은 하나의 모델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공도서관이 다양하게 시도하여야 할 것이고, 새롭게 설립되는 도서관에서는 혁신적인 모습으로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화의 새로운 시도가 공공도서관에서 나타나고, 공공도서관이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 조사 사항

## 1. 공공도서관 실태 조사

### 1) 조사목적

#### ○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주로 프로그램 측면)을 파악하고자 실시함. 서울시 소재 33개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각 시설의 시민참여수준, 교양문화프로그램, 도서관 관련 동아리의 운영상화,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 현황, 도서관 협력망 구축현황, 도서관별 특성 프로그램 등을 조사함.

<표 1> 조사영역과 설문문항 구성

| 조사영역          | 설문문항   |
|---------------|--|
| 시민참여          | 도서기부, 자료선정시 신청도서반영률<br>도서관 자원봉사 : 참여인원, 자원봉사활동내용,<br>공공도서관의 의사결정에 참여       |
| 프로그램          | 교양·문화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인력, 참여자 의견 반영<br>야간·주말프로그램 운영<br>도서관 동아리 운영, 독서회 지원 형태 |
| 장애인 및 노인 프로그램 | 장애인 열람실과 편의시설<br>장애인용 홈페이지 구축<br>노인 프로그램                                   |
| 협력관계          | 공공도서관 협력망 : 협력망 형태, 관외대출회원 범위<br>학교도서관 지원, 문고 지원                           |
| 특색 사업         | 도서관별 특색 사업 및 프로그램<br>지역사회지원 사업 : 청소년과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

#### ○ 조사방법

- 조사대상인 33개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실무자를 만나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함. 담당실무자 조사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함.

<표 2>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기간                          | 조사 대상                     | 사례수 | 조사 방법                                       |
|-------------------------------|---------------------------|-----|---|
| 2004년 3월 25일<br>~ 4월 9일(11일간) | 서울시 공공도서관 및<br>평생학습관의 실무자 | 33명 | 서울시 공공도서관 및<br>평생학습관을 방문하여 실무자<br>면담 및 설문조사 |

## 2. 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

### 1) 조사목적과 내용

#### ○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서울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행태와 이용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 함. 서울시 5대 생활권별로 공공도서관을 선택하여 기존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행태와 공공도서관에 대한 태도와 의식을 보려고 함.

#### ○ 조사내용

-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서울시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와 공공도서관 이용만족도 그리고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이용자 의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둠.

<표 3> 조사영역과 설문문항의 구성

| 조사영역            | 조사문항  |
|-----------------|---|
| 이용행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방문횟수, 이용시간, 주말이용여부, 타 공공도서관 이용여부</li> <li>- 이용자 거주지 위치, 교통수단, 소요시간</li> <li>- 도서관정보획득과정, 홈페이지 방문 및 이용목적, 만족도</li> <li>- 전자책 열람 및 만족도</li> </ul>   |
| 이용만족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열람실, 자료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열람실 : 이용시간, 분위기, 시설, 개인공간, 열람석 등의 만족도</li> <li>- 교양·문화프로그램 : 강의내용, 강좌다양성, 강의시설 등의 만족도</li> <li>- 기 타 : 직원서비스, 주변환경, 편의시설, 공간 등의 만족도</li> </ul>                            |
| 시민의식<br>및<br>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 및 자료 : 최신도서, 대출기간, 자료상호대차, 디지털자료 등</li> <li>- 교양·문화프로그램 : 다양한 프로그램, 지역문화정보제공</li> <li>- 공간 및 시설 : 이용시간, 열람공간, 가족공간, 탁아시설, 장애인 및 노인시설, 편의시설, 주변환경, 직원서비스 등</li> <li>- 기타 : 공공도서관 개선사항</li> </ul> |

## 2) 조사대상과 방법

### ○ 조사대상의 선정

- 서울시 생활권역별로 공공도서관 1개관을 선정하여, 선정된 도서관에서 열람실별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대상은 서울시 전역에 분포한 공공도서관 가운데 5대 생활권역에서, 2002년 서울시가 수행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는 1개관씩 선택하였으며, 시립공공도서관 2개관, 평생학습관 1개관, 구립공공도서관 2개관임.

### ○ 조사방법

- 조사원이 공공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도서관별 44부씩 전체 220명의 이용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후, 회수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함.

<표 4>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기간                          | 조사대상   | 사례수  | 조사방법  |
|-------------------------------|--|------|---|
| 2004년 5월 21일<br>~ 5월 27일(4일간) | 서울시 공공도서관 및<br>평생학습관 이용자<br>(교양·문화프로그램,<br>어린이열람실 이용자) | 220명 | 서울시 공공도서관 및<br>평생학습관 가운데<br>5개 시설을 선정하여<br>이용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

- 공공도서관 사전 방문 조사에서 공공도서관 이용자들 대다수가 일반열람실 및 디지털자료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설문조사를 통해 교양·문화 프로그램과 어린이열람실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행태와 이용만족도의 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도서관별로 교양·문화프로그램 이용자와 어린이열람실 이용자를 각각 7명 이상씩 설문조사 함.

<표 5>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의 특성

| 구분                           | 은평구립<br>도서관  | 성동문화<br>정보센터 | 영등포<br>평생학습관 | 용산도서관       | 강남도서관       |
|------------------------------|--------------|--------------|--------------|-------------|-------------|
| 운영                           | 구립<br>(민간위탁) | 구립<br>(민간위탁) | 시립<br>(교육청)  | 시립<br>(교육청) | 시립<br>(교육청) |
| 서울시평가*<br>(2002)             | 1위           | 5위           | 13위          | 11위         | 6위          |
| 문화관광부평가**<br>서울시순위<br>(2003) | 1위           | -            | 평가대상제외       | 10위         | 5위          |
| 건물(㎡)                        | 5,059        | 5,524        | 4,896        | 6,946       | 1,558       |
| 열람석(석)                       | 900          | 850          | 450          | 1,100       | 282         |
| 시청각실(석)                      | 56           | 63           | -            | 261         | -           |
| 디지털자료실(석)                    | 81           | 74           | 31           | 108         | 45          |
| 연간 이용자수(명)                   | 786,518      | 1,029,474    | 454,943      | 410,372     | 447,474     |
| 설립연도                         | 2001         | 1999         | 1974         | 1981        | 1982        |
| 생활권                          | 서북생활권        | 동북생활권        | 서남생활권        | 도심생활권       | 동남생활권       |

\*자료: 「2002 상반기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 보고서-공공도서관」, 서울특별시, 2002.

\*\*자료: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문화관광부, 2003.

<표 6> 설문지 응답현황

| 구분       | 설문지배부 | 응답자 수<br>(응답률, %) | 최종채택<br>(채택률, %) | 최종응답자<br>구성비(%) | 열람실별 응답자수                          |
|----------|-------|-------------------|------------------|-----------------|------------------------------------|
| 은평구립도서관  | 44    | 42<br>(95.5)      | 42<br>(95.5)     | 20.4            | 자료열람실:27<br>교양·문화:12<br>어린이열람실:23  |
| 성동문화정보센터 | 44    | 40<br>(90.9)      | 40<br>(90.9)     | 19.4            | 자료열람실:23<br>교양·문화:9<br>어린이열람실:9    |
| 영등포평생학습관 | 44    | 42<br>(95.5)      | 42<br>(95.5)     | 20.4            | 자료열람실:25<br>교양·문화:11<br>어린이열람실:10  |
| 용산도서관    | 44    | 44<br>(100.0)     | 43<br>(97.7)     | 20.9            | 자료열람실:27<br>교양·문화:3<br>어린이열람실:13   |
| 강남도서관    | 44    | 41<br>(93.2)      | 39<br>(88.6)     | 18.9            | 자료열람실:19<br>교양·문화:5<br>어린이열람실:12   |
| 계        | 220   | 209<br>(95.0)     | 206<br>(93.6)    | 100.0           | 자료열람실:121<br>교양·문화:40<br>어린이열람실:67 |